28일 Market Index
코스피 6012.44 (+374.10)
코스닥 771.28 (+27.45)
금리(국고채 3년) 3.799 (+0.041)
환율(원·달러) 1337.7 (+14.0)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AI 해킹’ 빗썸·대신·미래도 뚫렸다

〈대신증권·미래에셋운용〉

금융권 보안 참사

대신, 3.8만 고객정보 유출
미래, 투자자 정보 유출 없어
빗썸, 회원정보 포함 가능성
금감원 “IT 보안 앞장서야”



코스피 6000대 탈환 코스닥이 전 거래일보다 374.1포인트(6.63%) 오른 6012.44로 장을 마감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7.45포인트(3.69%) 오른 771.28로 장을 마쳤다. /뉴시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공격이 은행·보험업권을 넘어 금융투자 및 가상자산 업계 등 금융권 전반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업계에서 빗썸,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미래에셋운용·대신증권의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공격자들은 여러 금융사의 외부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훑으며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찾아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에서는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열흘간 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으로 위장한 신호 6만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6일 고객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유출 대상에 포함된 정보는 고객명, 이메일, 주소, 통신 ID, 은행명,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8개 항목이다. 이 중 입출금 계좌번호와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일부 업무용 웹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에 따른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관련 경로를 차단했다. 회사 측은 “일반 투자자 정보는 유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개인신용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빗썸에서는 전날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은 회원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유출 범위를 분석 중이다.

결과적으로 카드사 정도를 제외하고 주요 금융업권 전체가 최근 해킹 공격에 노출돼 피해가 확인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과 빗썸에 각각 현장 점검반을 보내 이들 금융사의 침해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도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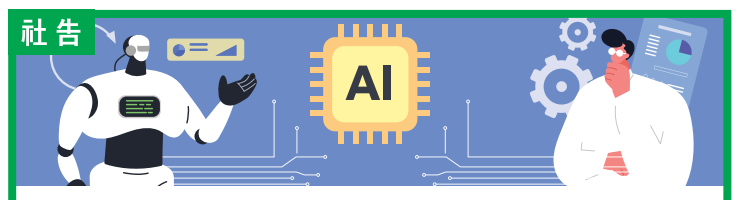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정례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AI가 해킹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보안 취약점이 쉽게 탐지되고 동시다발적 공격이 상시화될 것”이라며 “IT 보안은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보호하고 금융신뢰를 위한 핵심 업무라는 인식하에 이사회가 IT 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금융권과 보안 업계에서는 해킹이 더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지난 8일까지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12개 보안 항목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송기호 3차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전반에 보안 시스템 점검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오전 3시부터 지속적으로 다수의 북한 인터넷 프로토콜(IP)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스캔성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대량 탐지됐다고 이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분기매출 첫 100조… 100조 주주환원 추진

SK하이닉스, 콘퍼런스콜
3분기 영업익 83조 38%↑
고부가제품 판매 확대 영향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100조원을 처음 넘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에 따라 키옥시아 투자 수익 대부분을 특별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한다. 〈관련기사 2면〉

SK하이닉스는 28일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보다 매출은 32%, 영업이익은 38%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이 328%, 영업이익이 632%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전년 동기보다 33%포인트(p) 상승했다. 순이익은 39조775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 증가했으나 전분기보다는 58% 감소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AI 메모리 수요 증가와 주요 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됐다. D램 부문에서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출하가 본격화되고 서버용 DDR5 판매가 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낸드플래시 부문에서도 321단 트리플레벨셀(TLC) 기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판매가 확대됐다. 한편 회사는 HBM4가 4분기 출하량과 매출 모두에서 HBM3E를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M15X 생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HBM4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SK하이닉스는 올해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60조원 이상 등 약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사회는 3분기 현금배당 14조원과 자사주 20조원 매입을 결의했다. 배당금은 주당 2만원으로, 실적 개선을 반영한 배당 1만원과 키옥시아 투자 수익을 반영한 특별배당 1만원으로 구성된다. 회사는 올해 키옥시아 투자로 실현한 수익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정부 ‘엘리엇 ISDS’ 최종 패소

8년 법적 공방 마침표
1530억 배상책임 확정

정부가 엘리엇과의 ISDS 환송 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촉발돼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정부와 엘리엇 간의 8년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추가 취소소송을 포기하면서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원금 약 4849만 달러(약 658억 원)에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을 합산해 총 1억 1300만 달러(약 153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추가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아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합병안이 통과됐으나, 이후 엘리엇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다. 2023년 6월 원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항소법원과 환송심을 거치며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이 일부 수용되기도 했으나, 지난 9월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하며 기존과 동일한 배상 책임을 명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메트로 한줄뉴스



▲與, ‘김 여사 황제골프’ 주장 주진우 고발…“가짜뉴스로 명예 훼손” /사진 뉴시스

▲국힘 “李, ‘미군 믿을 수 있나’ 발언 강신철 국방장관 경질해야”

▲폭격 맞은 듯 철골만 앙상…‘폐허’된 구룡마을, 합동감식 착수

▲작년 외국인 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노동자는 5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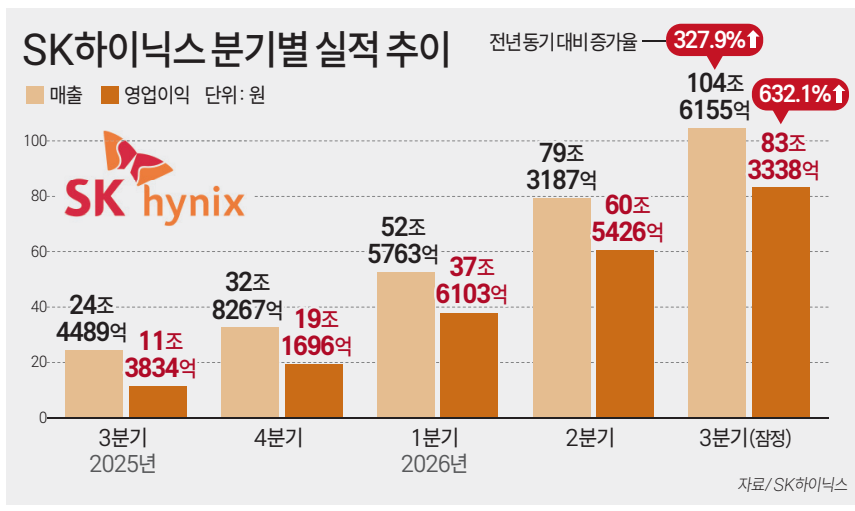
▲“진상규명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이태원 참사 외국인 유족 ‘분통’

▲9호선, 내달 16일부터 오전 열차 8회 증편…출근길 급행↑

주요기업 3분기 실적

2029년까지 D램·HBM 완판 전망… "내년 설비투자 확대"

SK하이닉스 콘퍼런스콜
글로벌 고객 장기공급계약 확대
솔리다임 IPO 검토중단 배경 설명
곽노정 사장 "결실 함께 커져야"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2029년까지 메모리 생산 물량이 사실상 모두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과 성장 투자를 병행한다.

28일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은 "과거와는 다른 성장의 가능성이 구체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영업이익은 6개 분기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곽 사장은 "그동안 기술 경쟁력으로 쌓아온 고객의 신뢰가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중장기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장기계약으로 수요 확보… HBM 공급 부족 지속

장기공급계약(LTA) 확대로 중장기 판매 물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졌다. SK하이닉스는 확보한 계약 물량과 고객사들이 협의 중인 수요를 종합하면 2029년까지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물량이 사실상 모두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글로벌 주요 클라우드 기업을 포함한 고객사 14곳과 장기계약을 체결해 2027년과 2028년 각각 전체 생산능력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했다.

다만 예상 판매 물량에는 구매 협의 단계의 수요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해당 물량도 구체적인 구매 계획에 기반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계약에는 가격 조정과 예치금 등 구매 이행 장치도 마련했다.

회사는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증가로 장기계약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클라우드 기업의 매출과 수주잔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AI 투자도 일반 기업과 국가 단위로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의 투자 조정이 전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공급 확대에는 제약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객사들이 요청한 HBM 물량이 공급 가능 물량을 두 배 이상 웃도는 데다 첨단 공정의 기술적 난도 상승과 신규 생산시설 구축 기간을 고려하면 메모리 공급 부족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 고객사의 HBM 적층 단수 하향 조정 움직임도 공급 부족에 따른 대응으로 분석했다. 제한된 물량으로 더 많은 AI 가속기를 생산하기 위한 조치로, 개별 D램의 용량 증가를 통해 적층 단수 감소에 따른 영향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비투자 단계적 확대… 성과 주주환원 병행

SK하이닉스는 수요 증가에 대응해 내년 설비투자를 확대하되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우현 SK하이닉스 재무부문장은 "현재의 투자는 단순히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 전환과 고부가 제품 확대에 필요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HBM 등 고성능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늘어나는 반면 미세화를 통한 생산량 확대에는 제약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규 공장의 골조 건설은 앞당기되 클린룸 가동과 장비 반입은 고객 수요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성장 투자와 함께 주주환원도 강화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약 100조원을 환원하기로 했다.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곽 사장은 "당사는 전략적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 그 대부분을 주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미래 성장 투자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는 주주환원 여력을 투자 성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실현한 일본 키옥시아 투자 수익 대부분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소각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 부문장은 현재 주가가 회사의 이익과 현금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당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 중단도 투자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다. 곽 사장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반도체 업계의 주가 조정으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용 스토리지 사업 투자는 지속하며 재원 조달 방안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곽 사장은 "앞으로의 과제는 이 변화를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사업의 성장과 투자 성과가 쌓일수록 주주 여러분과 나누는 결실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안정적 성과 만들고 주주와 나눌 것"

›› 1면 '분기매출 첫 100조'서 계속

자사주 매입액 가운데 주주환원 목적의 10조원은 전량 소각한다. 나머지 약 10조원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하며 주주환원 규모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를 포함한 주요 고객 14곳과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물량은 2027~2028년 전체 생산능력의 50% 이상이다. 회사는 고객과 합의한 가격 범위 안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계약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용인 1기 팹 가동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해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0나노급 6세대(1c) 공정 비중을 높이고 서버용 DDR5와 AI 서버용 LPDDR5 SOCAMM 판매를 확대해 D램의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견조한 메모리 수요 성장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고, 이를 주주와 꾸준히 나누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LG전자, 누적 매출 71조 돌파… 영업이익 55.9% '껑충'

3분기 매출 23.8조, 영업익 7819억
주력 사업 경쟁력 바탕 성장세 지속

LG전자가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의 성장, TV 사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LG전자는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 71조3778억원, 영업이익 4조347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 영업이익은 55.9% 증가했다.

3분기 매출은 23조82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7819억원으로 13.5% 증가했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특히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한 가운데 TV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실적 개선이 전체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구독사업 매출은 7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으며 기업간거래(B2B) 매출은 6조1000억원으로 3.4% 늘었다.

사업본부별로 보면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는 3분기 매출 7조444억원, 영업이익 259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분기 연속 7조원을 넘어섰다. 프리미엄 제품과 중저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이 성과를 거뒀으며 물류비와 마케팅 비용 증가에도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는 매출 5조215억원, 영업이익 1467억원을 기록했다. 올레드(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증가와 신흥시장 판매 확대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는 매출 2조8261억원, 영업이익 1903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존 수주잔고의 안정적인 매출 전환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사업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다. 매출 확대와 운영 효율화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냉난방공조 사업을 담당하는 ES사업본부는 매출 2조1736억원, 영업이익 872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상업용 공조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했지만 미래 신사업 수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4분기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원가 부담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생활가전과 완성차 시장의 수요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V 사업 역시 메모리와 패널 가격 부담, 고유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LG전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중심으로 가전 판매를 확대하고 TV 사업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장 사업은 기존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어가는 한편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냉난방공조 사업에서는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대형 프로젝트에 적기 대응해 신사업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B2B와 구독, 온라인 등 성장 전략을 지속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주주환원 정책도 이어간다. 올해 매입한 자사주 73만주는 계획대로 4분기 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가치 250억 달러… 자동차 부문 4위

종합 29위…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
로보틱스 확대·SDV 전환 등 성과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6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종합 순위 29위, 브랜드 가치 250억 달러(33조 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현대차가 창사 이래 최초로 달성한 것으로 지난해(종합 순위 30위, 브랜드 가치 246억 달러)보다 1계단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자동차 브랜드 부문 순위는 6위에서 4위로 2계단 올랐다.

현대차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된 사업 경쟁력과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매출 186조 2545억원을 달성했고,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에 힘입어 미국 시장 연간 100만대 판매와 글로벌 친환경차 96만대 판매를 동시에 돌파했다.

로보틱스 분야에선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 지난 6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훈련을 시작해 2028년 HMGMA 투입 준비를 본격화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및 소프트웨어중심차(SDV) 전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엔비디아와 관련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에이전트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를 출시한 게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2028년 출시하는 첫 번째 SDV 양산차에 엔비디아와 협업한 레벨2+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스포츠·문화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경험 확대도 현대차의 가치 상승을 견인했다. 1999년부터 국제축구연맹(FIFA)과 27년간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이는 파트너 후원사 중 아디다스, 코카콜라에 이어 세 번째로 긴 후원 기록이다. 지난 7월 폐막한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2160대의 차량을 지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핵심망 대신 업무망 노린 해커… 금융권 'AI 다층 방어' 절실

비대면 계좌·업무 지원망 집중 공격
증권업권 보안 예산·인력 비중 최저
망분리 넘어 AI 탐지·다중 인증 강화
CEO·이사회 책임 강화 등 통제 개선



고객들의 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탈취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증권사와 운용사·가상자산업계 등을 포함한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인공지능(AI) 해커들의 '먹잇감'이 됐다. 전문가들은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해킹 등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보안 공격에 대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터넷과 연결된 외곽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AI 기반 탐지·대응과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해킹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 정보 유출 사고 전후로 정보 유출이 확인된 주요 금융사는 총 20곳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4곳(신한·국민·부산·하나), 보험 1곳(미래에셋생명), 금융투자 2곳(대신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 저축은행 4곳(예가람·웰컴·DB·OK), 여신전문금융회사 2곳(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2곳(PFCT·모우다), 전자금융업체 1곳(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사업자 3곳(빗썸·스트리미·프라뱅), 상호금융 1곳(새마을금고중앙회)이다.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유출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금융권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이번 금융투자업계의 경우에는 공격자가 인터넷·모바일 뱅킹 관련 입출금 계좌번호와 고객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투자 및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서는 확산하는 보안 공격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고객 금융거래 정보까지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해커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 연계 서버,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곳을 찾아 반복적인 공격을 벌렸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악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업권의 정보보호 예산은 3276억원이다. 전체 IT 예산(2조9967억원)의 10.9%다. 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카드·자산운용 등 7개 금융업권 중 가장 낮다. IT 보안 인력 비중도 가장 적다. 올해 6월 기준 증권업권의 IT 인력은 5063명이다. 이 중 정보보호 업무 담당은 480명(9.5%)으로 전체 금융업권 평균인 9.6%보다 낮다.

◆망분리만으론 안심 못 해… AI 대응·다층 방어 시급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피해가 없는 회사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피해 여부가 보안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며 "해커가 마음먹고 공격하면 다른 회사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망분리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 과정에서 내·외부망 사이로 자료를 주고받는 접점의 보안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현재는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핵심망보다 인터넷 접점을 가진 업무 지원망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망의 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핵심망에 접근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법 자금·증권 이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내부 책임과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씨티그룹·모건스탠리·HSBC 등 해외 주요 금융회사는 이사회 산하에 별도의 기술위원회(Technology Committee)를 두고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 업계에는 이런 위원회를 둔 곳이 전무하다.

그나마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말 발의됐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킹 사고로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총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AI 공격에 대응할 기술적 방어 체계도 과제다. 염 교수는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동시다발적인 공격 양상은 해커들이 자동화 도구로 취약점을 빠르게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금융사도 AI로 취약점을 먼저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다중 인증을 우선 적용하고, 접근을 지속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와 실시간 이상행위 탐지·대응을 통해 한 단계가 뚫려도 다음 단계에서 막는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기관과 금융권 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AI 보안위협 대응 금융권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북한 IP 440만건 접속 시도
전산망 취약점 탐색 정황

21일 새벽부터 스캔성 접근 탐지
당국, 접속 이력·보안 점검 요청
실제 피해 없고 공격 주체 미확인

국내 금융회사의 전산망 취약점을 탐색하는 북한 인터넷주소(IP) 대역의 접속 시도가 440만건 넘게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접속 이력 확인과 보안 체계 점검을 요청했다. 다만 해당 접근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아직 없으며, 공격 주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회사에 북한 IP 대역의 스캔성 접근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북한 IP 대역에서 금융권을 겨냥한 접근이 지속적으로 탐지됐다. 공문을 보낼 때까지 집계된 접근 시도는 440만4101건이다.

스캔성 접근은 외부에서 시스템의 접속 통로나 보안상 허점을 살펴보는 행위다. 네트워크에서 열려 있는 포트 등을 확인해 공격 가능한 지점을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접근 시도 자체가 전산망 침입이나 정보 유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금융회사에 해당 IP의 접근 기록을 살피고 정보보호·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특이사항이 확인되면 당국에 알리도록 했다.

현재까지 해당 IP를 이용한 접근이 실제 침해사고로 이어졌다는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IP 대역이 탐지됐다는 사실만으로 북한 해커의 공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접속 경로를 우회하거나 IP 정보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 공격 주체를 판단하려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송기호 3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응회의를 열 예정이다. 빗썸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한 해킹 관련 사고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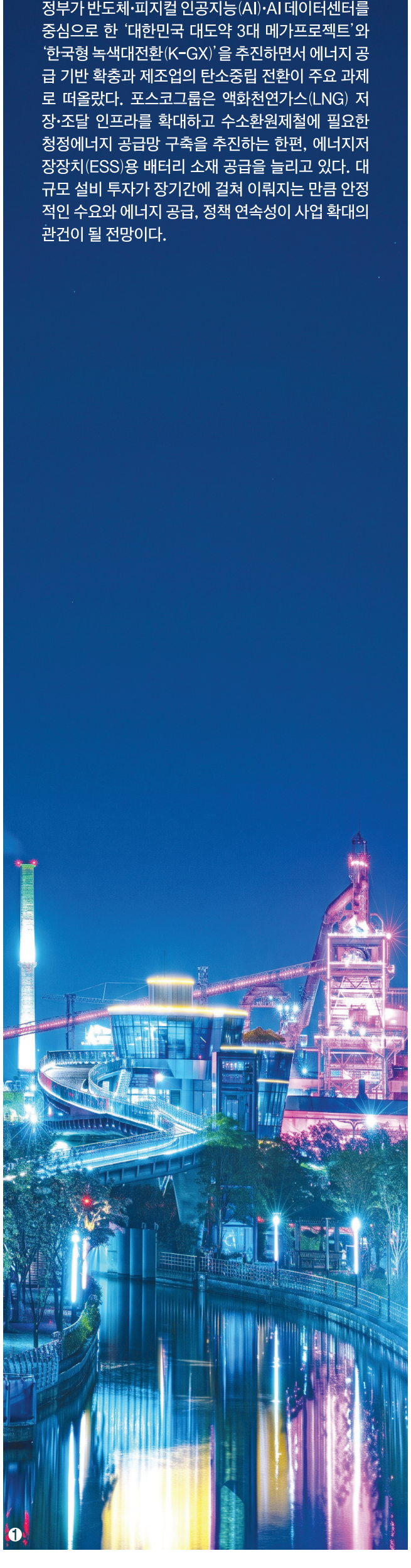


에너지 공급·탄소 중립 발맞춰 LNG·수소제철·ESS 강화

⑨ 포스코그룹

posco

정부가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과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포스코그룹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조달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소재 공급을 늘리고 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안정적인 수요와 에너지 공급, 정책 연속성이 사업 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❶

◆ LNG 저장능력 43% 확대…산업체·발전사업자 공급 기반 강화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LNG 발전은 전력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장기적으로 발전용 LNG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체와 발전사업자의 수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저장·공급 인프라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2026년 2235만t에서 2038년 1284만t으로 감소하는 반면, 산업용 등이 포함된 도시가스용 수요는 2356만t에서 2816만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2038년까지 천연가스 저장용량을 최대 887만t 확보하고 민간 비축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 LNG터미널 증설을 통해 그룹 내부와 국내 민간기업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저장탱크 6기, 총 93만㎘ 규모의 터미널에 20만㎘급 저장탱크 2기를 추가하는 제2터미널을 건설 중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공정률은 96%로, 완공 시 전체 저장능력은 133만㎘로 기존보다 약 43% 늘어난다.

광양 LNG터미널은 광양제철소 등 그룹 내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철강 제조업체와 LNG 발전사업자 등 외부 민간기업에도 저장·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증설로 늘어나는 저장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이용 수요도 발굴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 저장시설 확충과 함께 해외 조달과 국내 발전사업을 통해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셰니에르에너지와 연간 40만t 규모의 LNG를 20년간 공급받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4분기 첫 물량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총 3412메가와트(㎿) 규모의 LNG복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 조달·저장·발전사업을 아우르는 사업구조를 갖춘 만큼 터미널 증설에 따른 사업 간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저장·공급 인프라 확충이 LNG 밸류체인 내 사업 간 연계와 가격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LNG터미널은 건설에 장기간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철강 탈탄소에 청정에너지 인프라 필수…하이렉스 실증·전력 공급망 구축

정부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통해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면서 철강산업에서는 생산설비 개편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산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을 확보하고 2031~2036년 250만t 규모로 확대해 2050년 완전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에서 석탄을 활용하는 방식과 달리 수소로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청정수소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광양 LNG터미널 증설… 공급기반 확대
완공 시 저장력 133만㎘… 기존比 43%↑
美서 20년간 年 40만t 규모 LNG 도입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t 전기로 준공
포항선 하이렉스 상용화 가능성 검증

삼성SDI와 ESS용 LFP 양극재 공급 확대
향후 LMO 양극재 등 공급범위 확장 계획

포스코그룹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인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생산공정 전환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t 규모의 전기로를 준공했다. 전기로 도입으로 전력 사용량이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전 수전선로와 변압기 등 전력 공급시설도 확충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상용화를 추진한다. 포스코그룹은 2028년까지 포항에 연산 30만t 규모의 하이렉스 데모플랜트를 구축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후 대규모 생산설비로 확대하려면 청정수소와 무탄소 전력을 경제적인 가격에 확보해야 한다.

청정에너지 조달과 함께 저탄소 철강의 수요 확보도 과제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생산방식보다 설비 전환과 에너지 조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한 제품 가격과 시장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도 저탄소 철강을 적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전력망 안정화, ESS 투자 확대…포스코퓨처엠, 배터리 소재 공급 강화

AI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설비뿐 아니라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 시점을 조절할 ESS 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ESS 설치를 늘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총 1180㎿ 규모의 '2026년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11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SS 설치가 확대되면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가격과 수명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ESS에 활용되고 있어 관련 양극재 수요에 대응할 생산·공급 기반 확보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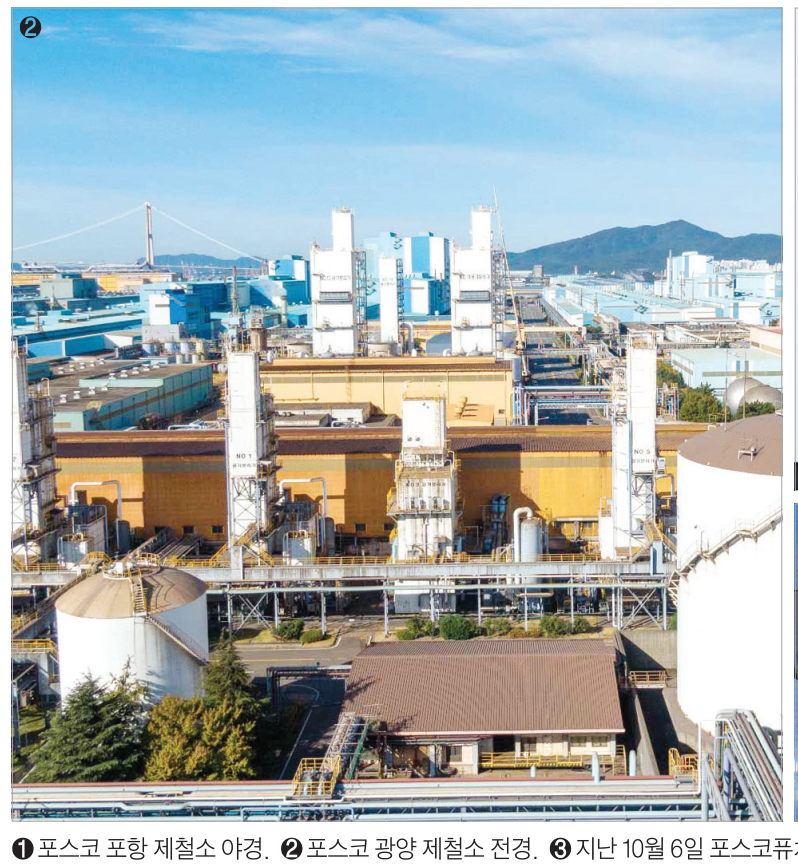
포스코퓨처엠은 ESS용 LFP 양극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일 삼성SDI와 약 6조원 규모의 배터리 소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합의한 2027~2032년 LFP 양극재 공급물량 19만t을 2배 이상 늘린 규모다.

양사는 기존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양극재 중심의 협력을 LFP로 확대했으며, 향후 리튬망간산화물(LMO) 양극재와 인조흑연 음극재 등으로도 공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삼원계 양극재와 LFP·LMO, 천연·인조흑연 음극재를 아우르는 소재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전기차와 ESS 배터리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전력 수요 확대에 맞춰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과 인력, 인프라 건설에 장기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에너지원별 비중 변화보다 10~20년을 내다보고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수소환원제철 역시 기술개발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와 저탄소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❷



❸



❹

❶ 포스코 포항 제철소 야경. ❷ 포스코 광양 제철소 전경. ❸ 지난 10월 6일 포스코퓨처엠과 삼성SDI가 삼성SDI 동탄사업장에서 LFP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소재 '일괄공급'을 위한 배터리용 소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삼성SDI 이광수 구매센터장. ❹ 지난 6월 17일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전기로 공장을 준공했다. (왼쪽부터)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균 전남도의장, 권향엽 국회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 /포스코그룹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다의 새로운 가능성을 BNK에 담았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시작된 꿈이 더 넓은 바다로 이어지도록
BNK금융그룹이 해양수도권의 두근두근한 미래와 함께합니다

2026년 해양금융추진단 신설 및 선박·해양인프라 금융 확대





부산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 **해양금융추진단 신설 · 특화센터 운영**



울산 친환경 에너지 허브 · **에너지산업 금융지원 확대**



경남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 **해양 · 물류 등 지역 특화산업 금융 확대**

본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썸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당정, 세종 행정수도 완성·수도권 공급 확대 입법 추진

국토교통위-국토부 당정협의
내년 서울에 남은 5개 부처 이전 등
민주, 다른 법안보다 우선 처리 의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8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을 국정감사 이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부동산 공급을 지원할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국토교통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홍기선 장관 임명 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11월에 추진할 예산과 법안 관련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복 간사는 "특히 강조했던 것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특별법"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세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고 행복도시특별법은 서울에 있는 5개 부처를 내년부터 완전히 이전시키는 과제를 담았다. 당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복 간사는 해당 법안 추진에 야당의 이견이 없냐는 질문에 "거친 바다를 출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년 묵은 과제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종으로 다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부처는 가도 대통령실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법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20년 묵은 국가 과제를 이번에 풀고 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사업 시행자도 용적률을 최대 1.3배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민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용적률을 1.2배까지 상향하도록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 사이 논의를 지켜보기 위해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

복 간사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정법은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에게 수정안으로 냈던 민간 사업자에게도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는 안을 제안했는데도 야당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안 처리 시기 때 최대한 빨리 조속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주요 당정 협의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복 간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두고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법안 처리 시점이 올 것"이라며 "국토부가 서울시와 대화를 해야 한다며 두 차례 연기한 것인데,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 수정안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일정 정도 가격 상승 우려가 있음에도 민간 용적률 1.3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1.2배로 올리는 것도 의미 있다. 서울시도 1.3배로 올렸을 때 교통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복 간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는 공기"라고 표현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당정협의 공개발언에서 "국토 균형 성장도 본격화 하겠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은 세종으로, 미래 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의 투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 2년차인데, 계획보다 실행에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주택 공급의 전격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가상자산 과세 유예 두 달 앞두고 결론 '보류'

과세 인프라·해외 거래소 형평성 변수
쟁점 사안 점검한 후에 판단하기로


당정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적 우려와 제도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 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박태홍 기자

당정이 28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쟁점 사안을 점검한 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어서 당이 이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추측도 나온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국내 과세 형평성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단 의견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오 간사는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및 시행 시기 ▲해외 거래소 과세 정보 확보 ▲가상자산 파생 금융상품 위치 설정 ▲손실이월공제 허용 문제 ▲거래소 별 과세 시뮬레이션 위한 정보 확보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원칙에 비춰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쭉 해 왔던 과제"라며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에 혹시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 또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는 어떻게 경청하고 또 반영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선관위 투표용지 검증 중단·재개 반복

6·3 지방선거 사태 공개 검증
촬영 허용 범위 놓고 여야 충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검증참관인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공개 검증이 28일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녹화 중계에 합의하면서 3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현장을 찾은 여야 의원들은 철저한 검증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객관적 증거에 따른 의혹 해소와 장기 점거 사태 종식에, 국민의힘은 참관인의 권리 보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공개 검증에는 민주당 추천 인사 45명, 국민의힘 추천 인사 40명,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 5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직원 6명 등 총 96명이 참관 인원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검사와 특검보 등 가용 인력 110명 이상을 투입해 공개 검증 전반을 총괄했다. 선관위 인력 약 500명도 검증 작업에 나섰다. 검증 대상 투표용지는 약 247만 장이다.

검증은 촬영 허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때 중단됐다. 이 특검은 현장에 CCTV와 책상별 영상 촬영 장비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하며, 원활한 절차 진행과 보안 등을 이유로 참관인의 개별 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투표지를 별도로 분류해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참관인은 "오늘 검증에서 참관인의 촬영이 불허된다면 이건 국민적 열망과 알 권리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라며 촬영 허용을 요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녹화 촬영을 못 하게 하는 게 맞는가"라며 "조율을 해달라"고 했다.

결국 특검팀은 녹화 중계를 위한 방송사 촬영을 허용했다. 참관인의 개별 촬영은 불허하되, 여야 참관인 각 1명에게 촬영 장비를 지급해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증은 중단된 지 3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특검 측은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참관인이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구호를 외치거나 특검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퇴장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증의 목적이 선거 결과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사실과 증거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선거관리 부실"이라며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 해소를 위한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 ▲현장의 안전과 질서 확보 ▲장기간 이어진 점거 사태 종료 ▲선거관리 체계의 미비점 보완 등을 요구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李 대통령 "안전은 국가의 핵심 책임"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안전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 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며 국가의 안전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10·29 이태원참사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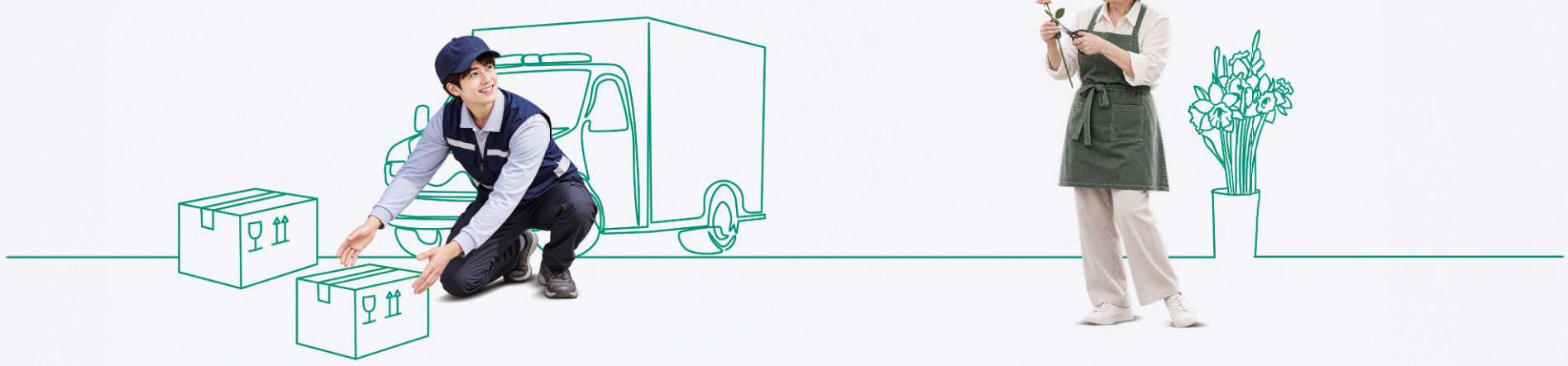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부처별로 나뉜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난 7월28일 출범했으며, 국민의 안전권을 높이기 위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공동 부위원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다. 이날 회의는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오늘의 표어처럼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안전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들도 있던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이찬진 "금융지주 CEO 승계과정, 투명·공정성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 이사회의장 간담회
"사외이사, 경영진 견제기능 수행 지배구조 개선방안 현재 논의중 금융사, 자율 방어체계 구축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세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의 자회사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미흡한 점이 없도록 점검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CEO 승계 절차 관련 통제 강화 등 사외이사가 권한과 여건을 갖추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사외이사가 산업에 대해 깊고, 넓은 시각을 보유하고 독립적 지위에 맞는 책임있는 판단과 실천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가) 사업다각화, 경영진 보수 및 평가(KPI) 등 핵심 경영 현안에 대해서도 회사와 주주의 장기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디지털 공격이 잇따르는 만큼, 정보기술(IT) 보안 대응 역량의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의 방식이 나날이 고도화되는가운데, 공격대상이 비핵심시설로 확대되는 등 전방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AI가 해킹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동시다발적 공격이 상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IT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안 취약점을 능동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자율 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용금융 공급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은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다"라며 "수동적·일회성 지원이나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그룹의 경영전략, 강점을 살린 중장기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성과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해외점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외점포의 사고 예방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해외는 법규 및 거래관행이 상이하고 거래구조가 다른 현지 특화 상품이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리스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점포의 리스크 측정 및 대응의 단계별로 원칙을 재정립하고, 본점의 정책과 관리수준이 현지 영업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찬진 원장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중심의 시스템과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금감원도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비롯한 제도 개선사항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현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우리은행, 삼성월렛 머니 해외결제 확대

별도 앱 실행 없이 단말기 태그 결제
오프라인 0.5%, 온라인 1.5% 적립

우리은행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간편결제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양사가 공동 출시한 '삼성월렛 머니'가 출시 1년 만에 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가운데, 모바일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은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X삼성월렛 머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영업 확대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삼성월렛 머니'의 유효 가입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충전계좌 가운데 우리은행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개 은행 중 42%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삼성월렛 머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삼성월렛(삼성페이)'을 기반으로 은행 계좌를 연결해 충전하고, 오프라인 및 모바일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간편결제·선불결제 수단이다. 우리은행의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삼성월렛 머니'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선불 결제 시스템과 연계한 만큼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및 NFC(근거리 무선통신)를 지원하며, 카드결제가 가능한 매장이라면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빠른 가입자 성장 배경으로 결제 편의성과 결제 혜택을 제시한다. 삼성월렛머니는 별도의 앱 실행 없이도 결제 단말기 태그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결제 시 0.5%, 온라인 결제 시 1.5%의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가맹점과의 직접 제휴를 통해 카드사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해 고객 혜택으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삼성월렛 머니의 전략 방향성으로 '노 카드, 노 캐시, 노 앱'의 결제 환경을 제시했다. 해외 여행 시 별도의 환전이나 실물카드 발급 없이, 국내에서 활용했던 삼성월렛 머니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삼성월렛 머니는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없는 '노 앱' 결제환경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도 최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외여행 시 현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권번호 및 전화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지만, 삼성월렛 머니 이용 시에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해외 간편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은 "간편결제 시스템의 발전은 결제 시장에서 현금은 물론, 카드까지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라며 "다만 해외에서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지 앱이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월렛 머니는 개인정보 제공 없이도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노 앱' 결제환경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신한금융, 신한·제주은행장 선임절차 착수

내달 압축후보군, 12월 최종후보 추천

신한금융지주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의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다음 달 최종 압축후보군을 선정하고 12월 초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가 지난 27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경위는 이날 신한은행장과 제주은행장 1차 압축후보군에서 최종 압축후보군을 2~3배 규모로 선정했다. 다음 달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압축후보군을 확정한 뒤 12월 초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승계 절차에서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이 강화됐다. 은행 임추위가 자체적으로 후보군을 심의·추천하고, 지주 자경위가 이를 검토해 압축후보군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자경위는 지난달 21일 자회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은행 임추위에



/신한금융그룹

승계후보군 정보를 공유했다. 은행 임추위는 대내외 경영환경과 향후 전략 방향 등을 고려해 차기 은행장의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자경위에 추천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절차인 만큼 별도의 심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경영승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경위 최종 회의에 은행 임추위원장이 참석해 후보군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나유리 기자

국내은행 17곳, 포용금융 점수 매긴다

금융위,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과 채무조정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용금융 성적표'가 도입된다. 단순히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를 넘어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얼마나 지원했는지까지 평가하고, 우수 은행에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체계는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가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금융권 전반에 포용금융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단순한 실적 점검만으로는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평가 대상은 국내은행 17곳이다. 자산규모와 영업형태에 따라 대형은행 7곳, 중소형은행 4곳, 인터넷은행 6곳으로 구분해 그룹별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지배구조(10%), 사회적 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이다. 특히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에 전체 평가 비중의 70%를 배정해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보, 잠실MICE 사업에 1조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서울 잠실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잠실MICE 조성 사업에 1조원 규모의 산업기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잠실MICE 사업은 서울 국제 교류복합지구(SID) 지구단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핵심 프로젝트다. 코엑스부터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까지 연계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 따라 잠실 일대에는 국내 최대 3만석 규모의 돔야구장과 서울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 컨벤션센터, 다목적 스포츠콤플렉스를 비롯해 국제업무 및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재원 전액을 민간 자금으로 조달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향후 40년간의 운영수익을 서울시 균형발전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등 민·관 공유 상생 구조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안승진 기자

HD현대, 조선·정유 중심 실적 개선… 3분기 영업익 71.5% ↑

연결기준 매출 22조, 영업익 2.9조
조선 부문 고부가 선박 매출 확대
HD현대오일뱅크 영업익 371% ↑

HD현대가 조선과 정유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늘렸다.

HD현대는 28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800억원, 영업이익 2조919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2%, 영업이익은 71.5% 증가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환율 변동에도 조선 부문의 고부가가치 선박 매출 확대와 정유 부문의 실적 개선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매출 8조2862억원, 영업이익 1조44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37.3% 증가했다. 고선가 선박의 매출 반영 확대와 생산성 향상, 엔진기계·해양플랜트 부문의 실적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HD현대오일뱅크는 매출 10조437억원, 영업이익 900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0%, 371.2% 증가했다. 정유·윤활기유 사업이 수익성을 유지한 반면 석유화학 사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적자 전환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야드 전경. /HD현대중공업

다만 HD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0.6% 감소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정제마진이 축소된 영향이다. 회사는 원유 수급과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장 운영에 주력할 계획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애프터마켓(AM)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 6501억원, 영업이익 95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7%, 2.2% 증가했다. 인수합병(M&A)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가운데 글로벌 엔진 정비기업 골텐스 인수를 통해 AM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글로벌 건설기계 수요 회복과 산업·발전기용 엔진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 2조1756억원, 영업이익 200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39.8% 증가했다. 향후 군산 엔진 신공장을 통해 발전용 엔진 생산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 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로 매출 1조1799억원, 영업이익 28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 15.1% 늘었다. 전력기기와 배전기기의 통합 공급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HD현대 관계자는 "조선, 건설기계, 에너지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삼성전기, AIDC 수혜… 분기 매출·영업이익 신기록

AIDC용 고부가제품 공급 확대
매출 3.7조, 영업이익 6910억

삼성전기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부가 부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전기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7633억원, 영업이익 6910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영업이익은 165% 증가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9%, 영업이익은 57% 늘었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 60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4687억원으로 113% 늘었다.

이번 실적은 AI 데이터센터용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와 반도체 패키지 기판(FCBGA) 등 고부가 제품 공급 확대가 이끌었다. 글로벌 전기차(EV) 차세대 플랫폼용 카메라 모듈 공급 증가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사업 부문별로 보면 컴포넌트 사업부의 3분기 매출은 1조8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서버·네트워크·파워 등 AI 데이터센터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전 응용처에서 매출이 확대됐다.

특히 AI 서버용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MLCC의 고용량화와 초소형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GPU와 주문형반도체(ASIC)당 필요한 MLCC 정전용량이 매년 2배씩 증가하는 현상을 'AI MLCC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AI 반도체의 고성능화가 MLCC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패키지솔루션 사업부의 3분기 매출은 93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전 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서버 중앙처리장치(CPU)와 AI 가속기, 네트워크용 등 데이터센터 관련 고부가 FCBGA 공급 확대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자율주행용 고성능 기판 판매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다.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3분기 매출은 94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전 분기보다는 9% 감소했다. 2억 화소 폴디드줌 카메라 모듈 신규 양산과 폴더블 스마트폰용 제품 공급 확대,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차세대 플랫폼용 카메라 모듈 공급 증가 등이 전년 대비 매출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기는 4분기에도 AI 데이터센터용 고사양 부품 수요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따른 전장용 부품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컴포넌트 사업부는 소형·초고용량 MLCC 등 AI용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차세대 고성능 제품 개발을 앞당길 계획이다. 주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와의 장기공급계약에 대응하는 한편, 전기차(xEV)와 ADAS용 초고용량·고압 MLCC 등 고부가 제품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패키지솔루션 사업부는 서버 CPU와 AI 가속기용 고부가 FCBGA 신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생산능력을 적기에 증설해 고객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주요 고객사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고화질·슬림 카메라 모듈 양산에 나선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차세대 플랫폼용 카메라 모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참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 연료전지부터 자동 충전, 차량 관제까지 상용 모빌리티 전반의 기술력을 선보인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수소 상용차의 운행 효율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공개하고, 버스·트럭 시승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의 실용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6(WHE 2026)'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수소 산업 전시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합한 박람회로, 11개국 19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전시에서 상용차 운행 환경에 맞춰 내구성을 개선한 수소 연료전지시스템을 처음 공개한다. 장시간·장거리 운행과 고중량 적재가 잦은 상용차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로, 수소 상용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자동충전 로봇을 활용해 청소트럭에 수소를 충전하는 과정을 처음 시연한다. 24시간 무인 충전을 통해 운전자 편의를 높이고 충전소 운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차량 운행 현황과 주요 부품 상태,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관제 솔루션 '블루링크 업타임 케어'도 전시한다.

현대차그룹은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현재 개발 중인 일렉시티 수소전기 저상 광역버스를 공개하고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저상 구조와 실내 공간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상품성 개선 모델과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시승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 상용차의 주행감도 경험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운행·정비·충전을 아우르는 수소 상용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고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첫날에는 글로벌 수소 산업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도 열려 수소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와 국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내구성을 개선한 상용 수소 연료전지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차량 관리, 수소 충전 자동화 기술을 통해 운행, 정비, 충전 등 전 과정에서 고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며 "수소 상용차가 실제 운송 현장에서 신뢰받는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국내에서 수소 상용차 3755대를 판매했으며, 수소전기버스 보급 대수는 3500대를 넘어섰다. 국내 수소전기차 시장은 2018년 넥쏘 출시를 계기로 승용차 중심의 시장을 형성한 뒤 정부의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에 힘입어 상용차로 영역을 확대해 왔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갤워치 수면 무호흡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을 적용해 갤럭시 워치의 수면 무호흡 기능을 고도화했다.

삼성전자는 고도화된 수면 무호흡 기능이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기존 수면 무호흡 징후 감지 기능에 더해 수면 중 호흡 장애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수면 중 시간당 호흡 장애 횟수를 분석하고, 빈도에 따라 호흡 장애 수준을 '경미·가끔·자주' 등 3단계로 구분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

'하이렉스' 상용화 박차

포스코가 글로벌 철강·원료·에너지 기업들과 협력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하이렉스(HyREX)' 상용화 기반 강화에 나섰다.

포스코는 지난 19~2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와 포항제철소에서 '하이렉스 R&D 파트너십 컨퍼런스 2026'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는 잘츠기터, BHP, 리오틴토, 포테스큐, 발레 등 글로벌 기업과 린데, 엑슨모빌, 에어리퀴드, 지멘스에너지, 뉴캐슬대 등 연구기관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유동환원 기술 개발과 파일럿 전기용융로(Pilot ESF) 연구 현황과 하이렉스 공정 전체의 연속 운전과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모 플랜트의 설계·건설 현황도 소개했다.

파트너사들은 탄소저감 경로와 직접환원철(DRI) 전기용융 기술, 수소 활용 및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 기술 등을 논의했다.

/양성운 기자

SK온

'UL 9540A' 평가 충족

SK온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강화된 대형 화재 시험 기준을 충족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안전성 검증을 마쳤다.

SK온은 자사 ESS가 대형 화재 시험(LSFT) 평가를 완료하고 북미 ESS 화재 안전성 시험 표준인 'UL 9540A' 평가 항목을 충족했다고 28일 밝혔다.

UL 9540A는 배터리 열폭주 시 열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 표준이다. 이 가운데 대형 화재 시험은 실제 ESS 화재 상황을 재현해 인접 컨테이너로의 화재 확산 여부 등을 검증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ESS 컨테이너의 열로 인접 컨테이너 내부 배터리 셀에 열폭주가 발생하지 않았다. 컨테이너 내부 온도도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

SK온은 이번 UL 시험성적서 획득을 계기로 글로벌 ESS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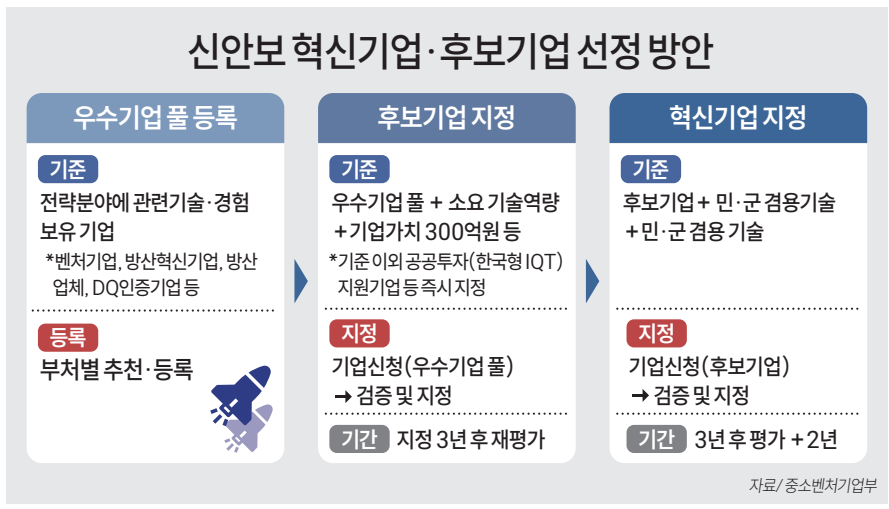
/유혜온 기자

AI·드론·로봇 등 538개사 발굴… '신안보 혁신기업' 키운다

신안보 특별법 산자위 심사 대기
전략분야 투자 전문회사 설립 추진

중기부, 1차 기업 풀 구축 완료
AI 145곳·우주항공 115곳 포함

기술력·성장성 따져 육성기업 선정
R&D·투자·사업화 전주기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안보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위한 채비를 서서히 마련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관계부처, 유관기관들과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등 9개 분야에 대한 신안보 기업 풀(Pool) 구축도 끝냈다. 신안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성장 뒷받침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발의안은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으로 발굴·육성하고, 연구개발·실증·투자·조달·수출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참고해 정부가 신안보 전략 분야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회수 성과를 재투자하는 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의한 법안에는 ▲신안보 전략분야, 신안보 혁신기업·후보기업, 신안보전략투자전문 회사 등 핵심 용어 정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중견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신안보 후보기업'으로 지정 ▲한국벤처투자 자회사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 설립 등의 내용을 두루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서울에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25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신안보 분야 기업 풀(Pool) 구축 결과 ▲신안보 전략분야 선정계획 및 혁신기업 평가기준(안) 마련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형 기술개발(R&D) 지원 방안 ▲신안보 분야 펀드 조성 등 투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중기부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벤처기업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1차 신안보 분야 기업 Pool 구축을 끝냈다.

총 538개사(중복 47개사 제외)로 추린 Pool 중에선 AI 분야가 145개사로 가장 많고 우주항공(115개사), 드론(68〃), 보안(65〃), 로봇(58〃) 등의 기업들이 주로 포진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기업 풀(Pool)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성 및 성장성, 안보기여도, 보안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선정·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신안보 전략분야로 현재 AI,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반도체, 우주항공, 드론, 신소재, 센서, 양자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관련 분야 혁신기업들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위한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신안보 분야가 기술개발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초기 투자 부담도 큰 반면, 국가안보와 미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인 점을 감안해 R&D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박용순 실장은 "신안보 분야는 국가안보 역량 강화뿐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신안보 분야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발굴부터 연구개발과 투자·사업화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S일렉트릭, 직류 기술로 전력망·AI시장 공략

BIXPO서 HVDC·직류 배전 기술 공개
전력망·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 추진

LS일렉트릭이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전시회에서 송전부터 배전까지 아우르는 직류(DC) 기술을 선보이며 국가 전력망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

LS일렉트릭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산업 박람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6'에 참가해 미래 전력망 핵심 기술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LS일렉트릭은 '지능형 전력망, AI 시대를 선도하다(Intelligent Grid, Powering the AI Era)'를 주제로 108㎡(12개 부스)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한다. 주요 전시 품목은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E-스태콤(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K-EMS(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이다.


LS일렉트릭 '빅스포 2026' 부스 조감도.
/LS일렉트릭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연계에 필요한 HVDC 기술을 집중 소개한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대규모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장거리로 보내는 기술로, 기존 교류 송전보다 장거리·대용량 전력 전송에 유리하다.

LS일렉트릭은 북당진~고덕 HVDC 변환설비 구축에 이어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에 참여하며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에 변환용 변압기(C-TR) 등 핵심 설비 공급을 추진해 국내 HVDC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한다. LS일렉트릭은 'AI 데이터센터 존'에서 기존 교류 기반 전력 공급 시스템부터 차세대 800V 직류 배전까지 전력 인프라의 발전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도 선보인다. 'E-스태콤 존'에서는 급격한 부하 변동에도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차세대 전력 솔루션을 공개한다.

'스마트그리드 존'에서는 대형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인 K-EMS의 국산화 경험과 기술 신뢰성을 소개한다. LS일렉트릭은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해외 스마트그리드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K-우수제품 188개 선정·해외 판로 지원

중기부, 뷰티·패션 등 4개 분야 선정
올리브영·무신사 등 해외 진출 지원

한국을 대표할 우수제품 188개를 선정해 유통 대기업과 협업, 해외 진출을 적극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SVC Seoul)에서 '2026년 K-수출전략품목'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4년부터 중기부는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소비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우수 제품을 선정해 K-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리브영 등 유통 대기업들과 협업으로 이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올해 K-수출전략품목에는 뷰티 70개, 패션 38개, 라이프 40개, 푸드 40개가 선정됐다. 앞서 983개 기업이 신청해 이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품 우수성 등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 188개 제품을 최종적으로 추렸다.

K-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올리브영(뷰티), 신세계백화점(뷰티·패션), 무신사(패션), G마켓(라이프), 롯데마트(푸드) 등 글로벌 유통기업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유통채널 입점, 온·오프라인 기획전, 현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해외 전시회·상담회 참가 등 정부 수출 지원사업 우대와 함께 중기부가 주최하는 해외 한류 연계 행사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올해 선정 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K-수출전략품목으로 뽑힌 기업 간 협의체도 출범해 네트워킹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위아, 열관리·구동 기술 유럽서 선봬

독일 IZB서 전동화 핵심 부품 공개

현대위아가 열관리 시스템과 차세대 구동 기술을 앞세워 유럽 완성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위아는 27일(현지시간) 독일 볼프스부르크 알레파크 전시장에서 개막한 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IZB 2026'에 참가해 전동화 차량용 핵심 부품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폭스바겐이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36개국 858개 업체가 참여했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에서 열관리와 구동 분야의 선행 기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2035년까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90%까지 감축한다는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에 대응해 에너지 효율과 부품 경량화, 패키징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에서 공조시스템 핵심 부품인 HVAC을 선보였다. 이 장치는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를 차량 안 상황에 맞는 최적 온도를 만들어 공급해 주는 부품이다. 현대위아는 HVAC보다 높이를 낮춰 공간 활용성과 전비 효율을 높인 슬림 HVAC도 선보였다. 또 배터리와 전력전자 시스템을 동시에 냉각할 수 있는 통합형 쿨링모듈도 선보였다. 현대위아는 기존에 따로 배치하던 두 개의 라디에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부품의 두께와 무게를 줄였다.

/양성운 기자 ysw@

금호타이어
日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세계 4대 디자인상 석권

금호타이어가 사계절용 초고성능 타이어의 일본 디자인상 수상으로 올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했다. 금호타이어는 '엑스타 스포츠 A/S'가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일본디자인진흥원(JDP)이 1957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독일의 iF·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독일 디자인 어워드' 에서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엑스타 스포츠 A/S는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사계절용 초고성능 타이어다.

/이승혁 기자 sh85@

기보, 세종지역 혁신스타트업 육성

세종창경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기술사업화·보증·투자 연계 추진

기술보증기금이 세종창조경제센터와 손잡고 지역 스타트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27일 세종시 세종창경센터에서 '세종 혁신스타트업 성장생태계 조성 및 금융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창경센터는 세종지역의 대표적인 창업지원기관으로, 창업기업 보육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창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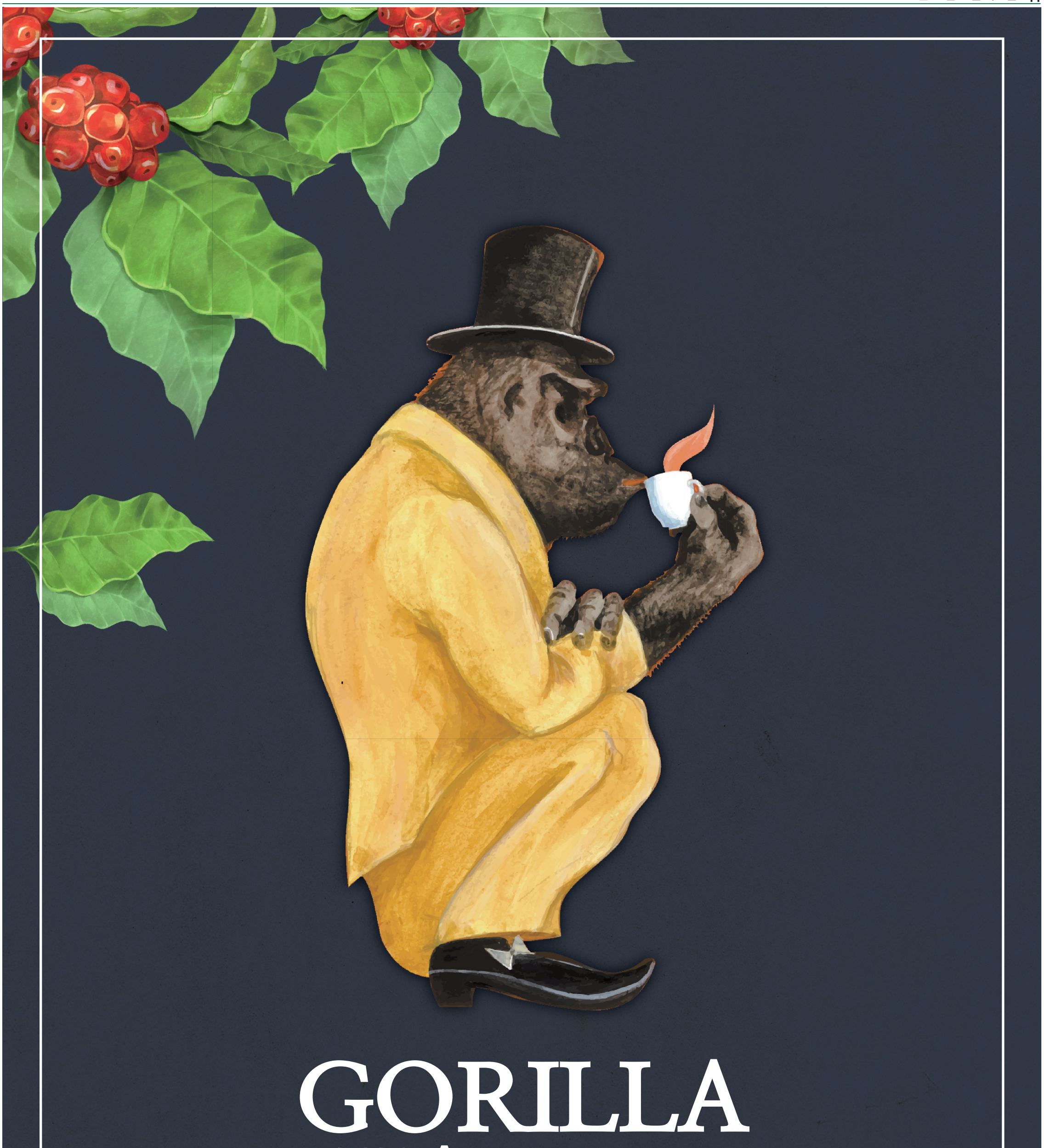
협약에 따라 세종창경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술사업화와 실증지원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스타트업 보증과 투자 추천·홍보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기업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증·사업화와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박경순 충청지역본부장은 "세종시는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지역"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세종창경과 긴밀히 협력해 혁신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S HOUSE BRAND GORILLA

고객신뢰 되찾은 SKT… "기업사고 대응 대표적 성공사례"

'기업의 경영위기와 대응' 세미나
디지털 취약계층 서비스부터
고객 신뢰좇, 보안백서 발간 '주목'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의 경영 위기와 대응'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해킹 사고 이후 기업의 신뢰 회복 사례로 SK텔레콤의 대응이 주목받았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사고의 교훈을 경영 체계의 변화로 연결하려 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관으로 '기업의 경영 위기와 대응'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는 "사고 발생 피해는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가 정상화 되더라도 고객 피해가 해결될 때까지 위기 관리 범위 넓혀야 한다"면서 "문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적인 예로, 영국 물류회사 KNP 로지스틱스는 내부 IT 인력과 외부 보안 서비스 등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후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3개월 만에 도산했다. 안 교수는 기업이 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시스템적 결함이 맞물리면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봤다.

기업 사고 대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SK텔레콤의 해킹 이후 신뢰 회복 과정이 제시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말 해킹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발표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긍정적인 사례로 디지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 점을 꼽았다. 또한 SK텔레콤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고객 신뢰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직 체계 정비와 보안백서 발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조직 문화와 경영 방침에 흡수되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 교수는 "취약 계층 서비스와 백서 발간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기업 내부의 논리에서 벗어나 고객 신뢰 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이 지겠다고 공언한 것은 다음 사건을 미리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재헌 SK텔레콤 CEO는 지난 12월 취임 후 첫 타운홀 미팅에서 스스로 변화관리 책임자가 되겠다고 발표했다.

신뢰 회복 결과를 증명하는 수치도 제시됐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등 비용 발생으로 인해 2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올해 2분기에는 경영 성과를 회복했다. 또한 월평균 해지율도 지난해 2분기 대비 절반(1.6%→0.8%)가량 줄었다.

다만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한계로 들었다. 그는 "해킹 탐지 대응이 늦었다는 점과 고객 행동 지침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한 점은 한계"라며 "핵심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과징금 취소 소송 등은 소비자 관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혜연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고객의 신뢰가 일회성 활동에 의해 회복되는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쌓여서 비로소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고객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자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소외 고객의 유심을 직접 전달하고, 전국 87개 시·군에서 3만5000여명의 고객을 만나 요금제 변경과 상담을 지원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의사 결정에 반영되도록 전사적인 과제로 체계화했다. 이 실장은 "고객 의견을 단순히 듣고 특정 부서에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변화 과제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네이버, 상장사 85곳 어닝콜 생중계 한다

'어닝콜 라이브' 서비스 제공
종목 검색하면 실시간 내용 청취
실적발표 종료 후 AI가 내용 정리

네이버가 국내 상장사의 실적발표를 검색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실적 수치뿐 아니라 경영진의 설명과 향후 사업 전망까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2일부터 국내 상장사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어닝콜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닝콜은 기업 경영진이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을 설명하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답하는 컨퍼런스콜이다. 사업별 성과와 투자 계획, 향후 경영 전략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주요 투자정보로 활용된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음성을 전달하는 '오디오 웹캐스팅'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는 네이버에서 기업명이나 종목을 검색하면 실적발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가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AI 기반 실시간 자막도 제공한다.

이날 오전 9시 진행된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29일 오전 10시 예정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발표 역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실적발표가 종료되면 AI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 제공한다. 기업별 손익과 재무현황, 사업별 성과와 전망 등을 요약하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 핵심 수치는 별도 표로 구성해 이용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의 실적 정보는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기반으로 IR 전문 콘텐츠 제공사인 IR큐더스가 정제해 네이버에 전달한다. 네이버는 국내 어닝콜 내용을 바탕으로 금액을 원화로 표시하고 주요 내용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제공하는 등 정보 전달 방식도 개선했다.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금융 검색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해외 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 콘텐츠 제공사 쿼터(Quartr)로부터 영문 어닝콜 원문을 받아 거대언어모델(LLM)로 번역·해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국내 상장사 어닝콜 실시간 청취 기능 도입으로 금융 검색의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됐다. 이용자가 기업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검색 화면에서 실적발표를 듣고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액체냉각 기술 표준 개발 박차

한국이콜랩과 공동개발

LG유플러스가 AI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액체냉각 기술 표준 개발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지난27일 한국이콜랩과 서울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운영 최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의 도입이 늘고 서버 집적화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의 발열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 공기냉각 방식보다 냉각 효율이 높은 액체 냉각 기술이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냉각유체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설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냉각 성능이 떨어지고 장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액체냉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27일 서울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정숙경 LG유플러스 AIDC사업담당(왼쪽)과 류양권 한국이콜랩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이에 양사는 LG유플러스의 AIDC 구축·운영 역량과 한국이콜랩의 글로벌 수처리 및 냉각유체 관리 기술력을 결합해 액체냉각 운영표준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AI 서버 랙과 냉각수 분배장치를 연결해 냉각유체를 순환시키는 'TCS 루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동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조민선 기자

네이버, 해외로 AI 팩토리 GPU '분산'

'각 세종'과 해외 코로케이션 시설 활용
전력 수급·입지 확보 문제 대응 전략

네이버가 엔비디아·브룩필드와 추진하는 약 12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팩토리 사업에서 국내외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분산 구축' 전략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국내에 집중 배치하는 대신 해외 코로케이션 시설까지 활용해 국가별 전력 수급 여건에 대응하고 인프라 확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메가와트(㎿), 2028년 200㎿ 규모의 AI 인프라 가동을 목표로 국내외 전력 공급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는 2장기적으로 1기가와트(GW)급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국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과 해외 코로케이션 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전력 수급 환경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세부적인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목표 시점에 인프라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 공급 여건은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가별 공급계약과 인허가 등 세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네이버는 지난 27일 브룩필드와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 확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10억달러 규모 전략적 지분투자를 위한 선결 조건도 충족했다. 브룩필드의 자본과 엔비디아의 기술, 네이버의 운영 역량을 결합해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센터 구축 방식이다. 네이버는 국내 데이터센터만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신 해외 코로케이션 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코로케이션은 외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간과 전력, 냉각 설비 등을 활용해 서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의 주요 변수인 전력 수급과 입지 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AI 팩토리는 고성능 GPU를 대규모로 연결하는 시설인 만큼 높은 전력 밀도와 냉각 성능이 요구된다. 특정 지역에 설비를 집중할 경우 전력망 연결과 인허가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 코로케이션 활용은 구축 속도와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신규 데이터센터를 직접 건설하는 방식과 비교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부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전력 공급 여건에 따라 설비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최빛나 기자

SKB, 국제 해저케이블 장애관리 체계 강화

LS마린솔루션과 '맞손'

SK브로드밴드가 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 해저케이블의 장애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SK브로드밴드는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잇는 SK브로드밴드의 해저케이블(SJC2)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SJC2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 통신망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긴급 출동 선단과 전문 장비 시스템을 상시 확보하고, 기술 데이터와 복구 전략을 사전에 표준화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상 발생시 현장 출동부터 해저케이블 인양·접속·정밀 매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복구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27일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김병옥 LS마린솔루션 대표(왼쪽)와 성진수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센터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환율에 꺾인 삼양식품 주가… 불닭 해외 성장성은 '여전'

환율 부담에 주가 고점 대비 28%↓
해외 호황… 분기 최대 실적 기대
중국 자싱공장 내년 초 가동 예정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삼양식품의 해외 성장성에 관심이 쏠린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 우려로 주가는 고점에서 크게 밀렸지만, 증권가는 해외 판매 증가와 생산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실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당장의 환율 부담을 판매량 증가와 비용 관리로 얼마나 상쇄할지가 관건이다.

28일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보다 5.21% 오른 119만2000원에 마감했다. 이틀 연속 반등했지만 지난해 9월 11일 장중 사상 최고가(166만5000원)보다 28.41%, 52주 최고가(156만5000원)보다 23.83% 낮다.

주가 조정에도 최근 보고서를 낸 7개 증권사는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신한투자증권 175만원, 한화투자증권 180만원, 한국투자·키움증권 각각 185만원, 다올투자·현대차증권 각각 190만원, 유안타증권 200만원이다.

◆ 환율에 흔들린 주가…내년 실적 전망은 유지

최근 주가를 누른 요인으로는 원화 강세가 꼽힌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같은 물량을 판매하더라도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환산한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삼양식품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식품 제조·판매 부문의 수출액은 1조2308억4000만원이다. 해당 부문 매출 1조4377억9800만원의 약 85.6%를 차지한다. 면·스낵뿐 아니라 소스·조미소재도 수출이 내수를 크게 웃돌았다. 소스·조미소재 제품 매출 533억8100만원 가운데 수출은 367억3600만원으로 약 68.8%였다.

다만 증권가는 환율 하락이 해외 수요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해외 판매가격이 현지 통화로 책정돼 원화 강세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직접 바꾸지는 않으며, 영향은 주로 원화 환산 매출과 수익성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적 전망의 조정 폭도 주가 하락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화투자증권이 제시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847억원으로 한 달 전 1877억원보다 1.6% 낮아졌다. 앞서 제시됐던 1865억원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937억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전날 종가 기준 내년 예상 실적 대비 주가수익비율(PER)이 8월 말 고점 당시 16.6배에서 12.0배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해외 판매 확대와 비용 통제가 환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올투자증권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8055억원, 1798억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4%, 37.4% 증가한 규모다. 팜유와 운임 부담에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절해 영업이익률 22.3%를 기록했을 것으로 봤다.

◆ 中 현지 생산으로 美·유럽 공급 확대

중장기 성장의 핵심은 해외 수요에 대응할 생산능력 확충이다. 내년 초 가동 예정인 중국 자싱공장은 연간 11억3000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반기보고서에는 해당 공장 투자가 약 2072억원 규모의 8개 생산라인 설비 투자로 기재돼 있다.

중국 현지 생산이 시작되면 국내 공장에서 담당하던 중국 수출 물량을 옮길 수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국내 생산 여력을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높은 미국과 유럽에 배분하는 구조다. 중국 현지 생산에 따른 물류비 절감과 밀양2공장 가동률 상승도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한화투자증권은 앞서 내년 자싱공장의 평균 가동률을 50%로 가정하고 미국과 유럽 판매량이 올해보다 각각 55.2%, 87.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매출액 전망치는 올해보다 28.1% 늘어난 3조9552억원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전가 능력도 주목받는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이 2022년과 2025년 10월 해외 가격을 약 10%씩 올렸지만 판매 증가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기준 미국 라면 시장의 단가가 2025년 8% 오르는 동안 삼양식품의 소매 판매액은 38%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긍정적인 전망이 따르는 가운데도, 생산능력 확대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속도는 확인해야 한다. 중국 공장의 초기 가동률과 국내 공장의 미국·유럽 추가 출고 시점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방어도 필요하다.

한화투자증권은 소맥 가격과 에너지·운반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가격 인상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둔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가운데, 향후 가격 전가와 비용 통제의 효과를 실제 실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융당국, 고위험 상품 현금 이벤트 제한

금감원·금투협, 내년 1월 1일 시행
상금 노린 반복 매매·과도한 거래 차단

금융당국이 거래금액이나 횟수에 따라 현금·상품권을 지급하는 증권사 이벤트를 금지한다.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금성 이벤트도 제한한다. 상금을 노린 반복 매매와 과도한 위험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계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공 한도와 내부통제 기준 등은 협회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금성 혜택이 과당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실제 한 증권사는 ETF 하루 거래대금이 500억원 이상이면 500만원, 200억원 이상이면 16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좌당 가격이 높고 가격 변동성이 작은 특정 ETF에 거래가 집중됐다.

이벤트에 참여한 개인투자자 2명의 거래대금은 각각 3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상금은 각각 3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이었다. 이벤트 기간 해당 ETF 전체 거래대금 97조5000억원 가운데 이 증권사를 통한 거래는 42조8000억원으로 43.9%를 차지했다.

해당 증권사가 이벤트로 지출한 금액은 약 60억원인 반면, ETF 거래로 거둔 위탁매매 수수료는 약 514억원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 연동 이벤트가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의 거래가 늘수록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지만, 투자자는 거래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상금을 받기 위한 반복매매가 시장 거래량을 왜곡하고 업계 전반의 과도한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거래 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 현금·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이벤트도 제한한다. 대상은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자 신용공여, 해외투자상품 등이다. 이벤트의 내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을 이수한 투자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신용거래 신규·우량 고객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증권사 자체 매매수수료나 이자의 할인·면제는 유지한다. 거래 횟수·금액과 무관한 일반적인 이벤트나 투자 잔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통상적인 가격 경쟁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살리겠다는 취지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1월 중 협회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12월까지 개정을 마치고 증권사별 내규 반영과 업무 절차 변경 등을 거쳐 시행한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자체 토큰화 기술로 디지털 채권 발행

만기 6개월 달러화 변동금리부 상품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이 국내 금융사 해외법인 최초로 자체 개발한 토큰화 시스템을 활용해 달러화 디지털 채권을 홍콩 현지에서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만기 6개월의 달러화 변동금리부 상품이다. 발행에는 솔라나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했고, 총 1250만 달러가 판매됐다.

디지털 채권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한 상품이다.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확인할 수 있고, 이자 지급과 만기 상환을 자동화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결제·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상품 기획부터 토큰 발행과 결제,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자체 기술과 운영 역량을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토큰화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이지스운용, 증권부문 대표에 서성용 선임

멀티에셋 운용 전문가 발탁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식과 대체투자 경험을 두루 갖춘 서성용 헤지펀드운용파트장을 증권부문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절대수익형 펀드 육성에 나선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성용 헤지펀드운용파트장(사진)을 증권부문 대표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대표는 다음 달 1일 취임한다.

서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에서 주식형 펀드를 운용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주식과 실물자산, 사모투자펀드(PEF), 벤처캐피털(VC) 투자를 담당했다. 이후 코람코자산운용에서 멀티에셋운용팀을 이끌었으며 2022년 이지스자산운용에 합류했다.

합류 후에는 멀티에셋투자파트(현 헤지펀드운용파트)를 맡아 주식·채권·공모주·메자닌·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 라인업을 구축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말까지 누적 펀드 설정 규모를 6300억원대로 확대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증권부문의 핵심 전략으로 '멀티전략 절대수익'을 제시했다. 시장성 자산과 비시장성 자산을 활용한 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마케팅 인력을 확충해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 패밀리오피스 대상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권투자파트는 국내외 채권형 자산을 활용한 투자 솔루션을 이어간다. /김아영 기자 aykim@

거래소, 부산 독거노인 21가구 집수리 완료

'KRX 실버안전 하우스' 완공 전달식



(왼쪽부터)서보경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과 어르신, 황순길 부산시청 사회복지국장, 정상호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이 26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집수리 완공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부산지역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부산지역 독거노인 21가구의 집수리를 마치고 'KRX 실버안전 하우스' 완공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는 정상호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과 황순길 부산시 사회복지국장, 서보경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집수리가 완료된 가정을 방문했다.

KRX 실버안전 하우스는 장애나 질병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긴 고위험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한국거래소는 2018년부터 낙상과 화재 등 주거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신하은 기자 godhe@

정부, 퇴직연금 개편·미래산업 육성… 양극화 완화 총력

경제-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3대 핵심 사회정책 구체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 체계 구축
퇴직급여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 각 분야 양극화 완화에 정책적 역량을 끌어모은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회의를 주재했다.

이 부총리는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이 논의했다.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 중이다. 조만간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7대 시드(SEED·7개 분야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 방안 ▲해양수산 AX 전략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등이 논의됐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경우,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편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되, 수탁자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가·관리·감독을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하여 안정적 운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 내용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

7대 시드는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범정부 사업이다.

정부는 7대 시드별 2030년·2035년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미션을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투자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한 신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를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2년 연속 아시아 1위·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이른 추석에 유통업체 9월 매출 4.5% 증가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프라인 5.1%, 온라인 4.0%↑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이른 추석 연휴에 따른 명절 특수 덕분에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통상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4.5% 늘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이 각각 5.1%, 4.0% 증가하며 동반 상승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전년보다 이른 추석 연휴(9월 24일~27일)로 인해 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식품군(6.3%)과 장보기 서비스 등 서비스/기타(7.3%) 분야의 매출 신장이 두드러졌다.

오프라인 부문은 백화점(8.4%), 준대규모점포(SSM·5.0%), 대형마트(4.0%), 편의점(2.9%) 등 조사 대상 모든 업태에서 매출이 늘었다. 대형마트는 추석 먹거리와 차례 음식, 명절 선물용 가전·완구류, 의류 판매 호조에 힘입어 2개월 연속 매출이 증가했고, 지난 6개월간 이어지던 구매건수 감소세도 소폭 반등(0.5%)했다. 백화점은 식품(13.0%) 외에도 가을 의류를 찾는 소비자가 늘며 여성캐주얼(15.2%)과 남성의류(8.7%)가 성장을 이끌었다. 편의점은 연휴 기간 간편식을 찾는 1인 가구 증가로 가공식품(5.9%)이 늘었으며, SSM은 농수축산물(10.0%) 위주의 제수용품 수요가 집중됐다.

온라인 유통 역시 명절 특수에 따른 식품(6.7%) 매출 증가세와 함께, 음식배달·여행·문화상품 및 e-쿠폰 등을 포함한 서비스/기타(10.6%) 이용 수요가 늘며 전체 성장을 뒷받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2035년 자율운항선박 1위 목표

AI 해양수산 전략 발표
해사 안전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확대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보유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스마트 양식장 보급률은 기존 3.7% 수준에서 2030년 10% 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형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AX(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 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 분야 산업을 비롯해 안전·환경관리 등 해양수산 현장 전반으로 AI 활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해운·해사, 항만·물류, 수산, 해양 분야 AI 혁신과 AX 생태계 조성 5대 전략과 15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해수부는 2035년까지 완전 자율운항선박 시장 1위 수주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32년까지 산업통상부와 함께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사 안전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상 공급망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로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북극항로의 실측자료를 분석해 선사와 화주의 운항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항만 생산성은 2035년까지 30% 높이고 물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데 피지컬 AI를 활용한다. 2029년까지 광양항에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컨테이너 하역·이송 자동화 장비 기술 등 피지컬 AI 항만 신기술 실증 공간으로 활용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AI가 작업 상황을 분석하고 하역·이송 장비 간 조정을 통해 운영을 최적화하는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관리 플랫폼을 도입한다. 해수부는 부산항 통합 정보 플랫폼인 'Port-i'를 고도화해 해상·항만·내륙의 물류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김정관, 구미 찾아 25조 투자기업 간담회

〈산업부 장관〉

현장 점검하고 지원 방안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북 구미시 소재 LG이노텍 구미 4공장을 방문했다. /산업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경북 구미를 찾아 첨단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경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약 25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가진 기업들과 간담회에서 지역 투자 활성화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LG이노텍 구미4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배터리 BaaS 시험실증센터 준공식, 구미지역 투자기업 간담회, 제3차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지역 확산 컨퍼런스 등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LG이노텍 구미 4공장에서 고성능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용 프로세서 등에 사용되는 FC-BGA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을 살피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된 배터리 BaaS 시험실증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총 272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해 배터리 리스·구독·재사용 등 새로운 사업모델 실증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

올해 첫 4곳 지정, 내년 2곳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지정해, 지역 맞춤형 물관리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올해 실시된 첫 공모에서는 군산시, 제천시, 증평군, 천안시 등 총 4곳이 지정돼 현재 세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2027년에도 2곳을 추가로 선정해 지역의 복합적 물 문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김종훈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혁신 추진"

제4대 축산환경관리원장 취임



축산환경관리원은 기관의 제4대 원장에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농식품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농정 핵심 보직을 두루 지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 지방 행정을 이끈 경험도 지닌 현장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 원장은 지난 26일 세종 본원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이자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으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임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고 했다. 이어 기관이 축산 현장의 갈등 접점에서 실질적 해답을 주는 든든한 중재자이자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 현장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혁신'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경영 원칙으로는 ▲상생경영(농가·주민·지자체 협력 생태계 조성) ▲신뢰경영(공정·투명한 운영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안전경영(임직원 근무 안전 및 현장 무재해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에스앤마일즈가 선택받는 이유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
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27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01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VALVE WORLD EXPO 2026

VALVE WORLD EXPO DÜSSELDORF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 01(화)~12. 03(목)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215만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2 금속 용접 / 절단 기술 전시회
URBAN STEEL EXPO 2027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4. 20(화)~04. 23(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3 주조 / 열처리 / 야금 / 캐스팅 금속분야 최대 국제 전시회
GMTN 2027

GIFA METEC THERM PROCESS NEWCAST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6. 21(월)~06. 25(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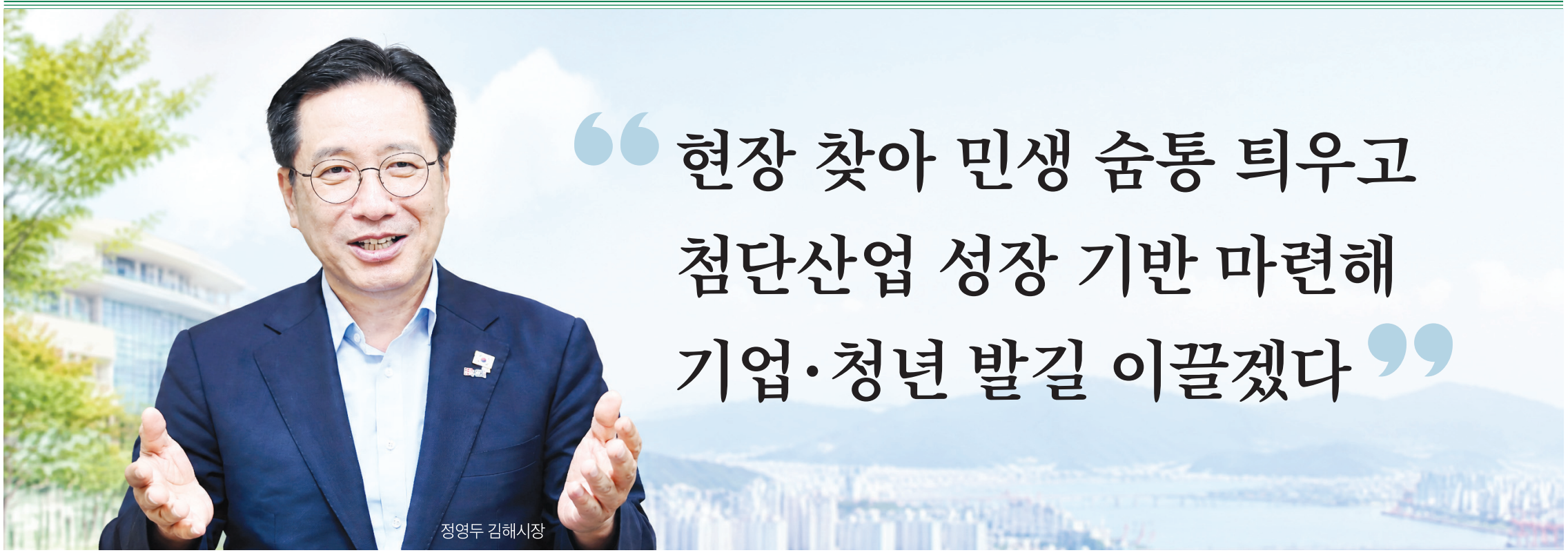
S&Miles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02-3487-2800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현장 찾아 민생 숨통 틔우고 첨단산업 성장 기반 마련해 기업·청년 발길 이끌겠다”

인터뷰 | 정 영 두 김해시장

취임 100일, 약속한 변화 실행하고 4년간 김해가 나아갈 방향 다져
현장 찾아 시민 목소리 정책 반영

민생·생활밀착 분야 변화 ‘우선’
‘정성껏 해드림 센터’로 불편 해결
공공장소 중심 금연·금주 확대

부산항·가덕신공항·철도 연계
스마트 물류 플랫폼 등 기반 마련

김해시가 민생 회복과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진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해시장은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한편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과 전력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100일은 시민과 약속한 변화를 하나씩 실행하고 앞으로 4년간 김해가 나아갈 방향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시장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 앞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거창한 구호보다 생계와 교통·의료·복지 등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책상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지난 100일이 본격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먹고살기가 어렵다는 호소와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였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졌고 시민들도 생활비 부담을 호소했다. 교통과 의료·복지·주거 등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현장에서 느낀 것은 행정이 생각하는 문제의 크기와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의 크기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어르신에게는 전등 하나를 교체하는 일도 쉽지 않을 수 있고 출퇴근길 버스를 오래 기다리는 시민에게는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할 수 있다. 시민이 원하는 행정은 결국 자신의 어려움을 살피고 생활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잘 사는 김해’라는 시정 철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시민이 존중받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도시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김해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행정의 중심을 공급자가 아닌 시민에게 두고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실제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진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도 이런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다. 10월부터는 ‘김해 정성껏 해드림 센터’를 시범 운영해 어르신들의 전등이나 문손잡이 교체처럼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도 해결하고 있다. 시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행정의 문턱은 낮아지는 것이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했으면 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민생과 생활밀착 분야의 변화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만큼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도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다.”

“생활 현장의 불편을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다. ‘김해 정성껏 해드림 센터’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속 작은 문제를 살피는 사업이다. 교통·의료·복지 분야의 개선도 이어가 시민들이 시청이 자신의 삶과 가까워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간부회의에서 금연·금주구역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금연구역이나 금주구역을 늘리려는 것은 아니다. 공원과 산책로처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은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흡연과 음주가 간접흡연이나 소란 등으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줄여야 한다.”

“시민 이용이 많고 보호 필요성이 큰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관련 구역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분한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 자체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





❶정영두 김해시장(가운데)이 지난 8월 10일 폭염 가뭄 대응 현장점검을 위해 단감 재배농가에 방문했다. ❷정영두 김해시장이 지난 7월 24일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방문해 전략산업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해시

-앞으로 김해의 미래 성장동력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김해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준비하는 일은 시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다. 김해는 부산신항과 가덕신공항·철도를 연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를 활용해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비롯해 전력반도체와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기업이 모이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런 사업은 한 시장의 임기 안에 모두 완성하기 어려운 만큼 더 늦기 전에 시작해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56만 김해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약속한 일을 하나씩 실행해 결과로 보여주는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앞으로도 교통과 의료·복지 등 생활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의 오늘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00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많이 듣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4년 뒤 시민들이 우리 삶이 나아졌고 김해가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일과 김해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일을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metro

◆ 정영두 김해시장 약력

▶ 인적사항
- 출생년도 : 1963년 (만 62세)
- 출생 : 김해군 생림면

▶ 학력사항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주요경력
-김해시장(현)
-경남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현)
-이재명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경제특보(전)
-BNK 경제연구원 원장(전)
-경남은행 이사회 의장(전)
-제11대 김해상공회의소 의원(전)
-㈜휴롬 대표이사 사장(전)
-노무현정부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행정관(전)

30년 모은 여행 가방·북엔드… 이랜드그룹, 기네스 세계 기록

인증식 개최… 한우석 대표 등 참석
이랜드뮤지엄 아카이브 첫 공개
"세계최대 패션 R&D 센터 도전"



이랜드그룹은 28일 서울 강서구 이랜드글로벌 R&D센터에서 연 '기네스 세계 기록' 공식 인증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한우석 이랜드뮤지엄 대표, 손민영 기네스 세계 기록 심사관, 서영희 이랜드뮤지엄 총괄디렉터.



이랜드글로벌R&D센터 지하에 위치한 이랜드뮤지엄의 패션 아카이브 풍경. /김서현 기자

이랜드그룹이 30여 년간 수집한 여행 가방과 북엔드 컬렉션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 2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100만 점이 넘는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며 문화유산 아카이브로서의 경쟁력을 드러냈다.

이랜드그룹은 28일 서울 강서구 이랜드글로벌R&D센터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 공식 인증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손민영 기네스 세계 기록 공식 심판관, 한우석 이랜드뮤지엄 대표, 서영희 이랜드뮤지엄 총괄디렉터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랜드그룹은 여행 가방 7816점과 북엔드 4674점으로 각각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가방 컬렉션(Largest Display of Travel Bags)'과 '세계 최대 규모의 북엔드 컬렉션(Largest Display of Bookends)' 부문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 공식 인증을 받았다.

두 컬렉션은 이랜드그룹이 1995년부터 30여 년간 이어온 수집의 결과물이다. 국내 기업이 소장품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것은 이랜드가 처음이다. 이랜드는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최대 30개 부문의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할 계획이다.

서 총괄디렉터는 여행 가방과 북엔드가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시대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행 가방은 운송수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며 "마차와 증기선, 기차, 자동차, 비행기로 이동수단이 달라지면서 여행 가방의 형태와 소재도 변화했다"고 말했다.

북엔드에 대해서는 "출판의 역사와 산업혁명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산업혁명 이후 출판이 대중화되면서 가정의 서재가 사교의 중심이 됐고, 책을 지탱하는 북엔드도 장식품이자 수집품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랜드그룹은 이랜드글로벌R&D센터 지하 1·2층에 자리한 이랜드뮤지엄 아카이브도 처음 공개했다.

이랜드뮤지엄은 1995년부터 패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위인 등 4개 분야에 걸쳐 소장품을 수집해 왔다. 현재 소장품은 100만 점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패션 관련 자료만 약 30만 점에 달한다. 약 2000평 규모의 패션 아카이브에는 의류와 액세서리, 각종 디자인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돼 있다.

모든 샘플은 별도의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각 물품에 부착된 태그를 통해 소장품의 정보는 물론 대여자와 활용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랜드 소속 디자이너들은 아카이브에서 디자인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실제 상품 기획과 개발에 활용한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30년 동안 모아온 아카이브가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장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최대 30개 부문의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해 이랜드글로벌R&D센터를 세계 최대 규모의 컬렉션을 갖춘 패션 R&D센터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롯데百, 첫 IP 전문관 '팬덤 스페이스' 연다

〈지식재산권〉

부산본점 지하 1층에 540평 규모
애니메이트·베스트하비 등 입점

롯데백화점이 오는 30일 부산본점 지하 1층에 약 1785㎡(540평) 규모의 지식재산권(IP) 전문관 '팬덤 스페이스(FANDOM SPACE)'를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팬덤 스페이스는 애니메이션·게임·캐릭터·피규어 등 장르별로 흩어져 있던 서브컬처와 팬덤 문화를 한 공간에 모은 전문관이다. 상품 판매뿐 아니라 취향이 같은 고객들이 모여 교류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팬덤 스페이스에는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굿즈·서적 등을 판매하는 '애니메이트'가 입점한다. 인기 IP의 캡슐토이를 선보이는 '반다이 가샤폰 오피셜샵'과 캐릭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는 '이치방쿠지'도 들어선다.

일본 캐릭터 브랜드 '산엑스(SANX)'와 프라모델·피규어 전문매장 '베스트하비'도 입점한다. 베스트하비에서는 코토부키야와 굿스마일컴퍼니 등 일본 하비 브랜드의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IP전문관 _팬덤 스페이스_ 닌텐도 매장에서 직원들이 게임 체험존을 소개하며 직접 게임을 즐기고 있다. /롯데쇼핑

개장을 기념해 지하 1층 '키네틱 스테이지'에서는 대형 팝업스토어 7개가 동시에 운영된다. '원피스 무기와라 스토어', '해리포터 마호도코로', '라리가 웹툰'을 비롯해 짱구, 히나쿠우, 빵고미 등 다양한 캐릭터 콘텐츠를 선보인다.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구매와 SNS 게시물 작성, 매장 방문 인증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주말에는 빵고미, 해이원, 리락쿠마 등 캐릭터 인형탈과 함께하는 포토타임도 마련된다. 9층 엘아레나에는 대형 짱구 벌룬 포토존과 체험 부스가 설치된다.

내달 8일에는 9층 엘아레나에서 '캐릭터 코스프레 챌린지' 결선이 열린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퍼레이드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심사위원 평가와 현장 관람객 투표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부산본점 정문 외벽에서는 주요 캐릭터와 크리스마스 테마 영상을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 쇼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부산본점을 시작으로 향후 잠실 롯데월드몰 등 전국 주요 거점으로 팬덤 스페이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와인25플러스, 누적 주문 2000억 돌파

GS리테일 연간 10만명 수준 신규 유입
주류 박람회 '그랜드 테이스팅' 개최

GS리테일의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가 출시 6년 만에 누적 주문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기준 집계다.

와인25플러스는 우리동네GS,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한 뒤 GS25·GS더프레시 매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와인·맥주·위스키·사케·백주 등 1만여 종의 주류를 취급한다.

와인25플러스의 올해 1~9월 주문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재구매 고객 수도 32.1% 늘었다. 신규 고객 역시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픽업 방식은 추가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다. 와인25플러스 이용 고객 중 GS25에서는 약 25%, GS더프레시에서는 약 50%가 매장에서 추가 구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25플러스 첫 구매 고객 중 약 20%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우리동네GS 앱을 처음 이용한 고객으로 분석됐다.

GS리테일은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오는 29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주류 박람회 '그랜드 테이스팅'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국가의 주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중국 대표 백주 '귀주마오타이'의 역사와 주류 문화를 소개하는 강연을 비롯해 글렌터렛 20년, 올드 립 밴 윙클 10년, 카발란 15주년 올로로소쉐리 2009 등 프리미엄 주류 시음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유미 GS리테일 와인25플러스 팀장은 "다양한 주류 상품과 편리한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주류 스마트 오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온라인 패션 플랫폼, 브랜드 다양성이 경쟁력·선호도 좌우"

무신사·유통학회 산학협력 연구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 입점한 브랜드의 다양성이 플랫폼 경쟁력과 소비자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술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이동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3일 열린 한국유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브랜드 구색 다양성이 온라인 패션 플랫폼 리테일 이쿼티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리테일 이쿼티(Retail equity)'는 소비자가 특정 유통업체에 대해 갖는 신뢰와 긍정적 인식 등 무형적 자산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기존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을 온라인 패션 플랫폼으로 확장해 분석했다.

연구팀은 무신사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플랫폼의 리테일 이쿼티를 좋은 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인식인 '커머스 자산'과 이용자 간 리뷰 및 소통이 활발하다는 인식인 '커뮤니티 자산'으로 구분해 브랜드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 대형 브랜드가 다양하게 입점한 경우 소비자는 상품 구색이 넓다고 인식하는 데 그쳤다. 반면 신진·성장 브랜드가 다양하게 입점한 경우에는 상품 구색뿐 아니라 플랫폼 자체가 활기차다는 인식도 함께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이 신진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인식은 상품 구색의 다양성보다 플랫폼의 활력을 느낄 때 더 크게 형성됐다. 이러한 인식은 플랫폼 선호도와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신진·성장 브랜드에 대한 구매 의향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 브랜드의 다양성 역시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 신진·성장 브랜드의 구매 의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대형 브랜드 유치와 신진 브랜드 육성이 상호 보완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유통학회와 무신사의 산학협력 연구로 진행됐으며, 설문 설계부터 조사·분석 및 결과 도출은 연구팀이 독립적으로 수행했다.

/김서현 기자

NS홈쇼핑, 'NS스킨십 서포터즈' 수료식

NS홈쇼핑이 고객 의견을 방송 제작에 반영하는 '2026 NS스킨십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27일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 NS스킨십 서포터즈'는 NS홈쇼핑의 핵심 소비층인 5070세대 고객이 방송 제작 과정에 참여해 상품에 대한 의견과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11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됐으며, 2030세대 PD와 5070세대 고객이 함께 상품 설명과 시연 방식,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

NS홈쇼핑은 활동 기간 총 6차례의 정기 모임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객의 상품 사용 경험과 구매 결정 기준, 구매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 등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15건을 제작해 총 14건의 방송에 적용했다.



NS홈쇼핑은 지난 27일 '2026 NS스킨십 서포터즈' 수료식을 개최했다. 조항목 대표(앞줄 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S홈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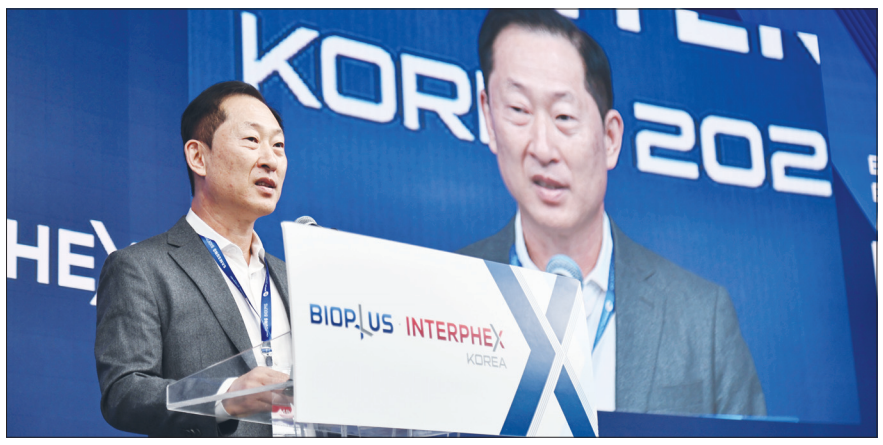
NS홈쇼핑은 이번 활동에서 축적한 고객 의견과 분석 자료를 향후 방송 기획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고난의 시기’ 지나는 바이오·제약 공동연구·AI 인프라로 한계 넘어야

‘BIX 2026’ 개막

35개 국가, 300여개 기업 집결
AI 자금 집중… 바이오 투자 위축
산업부, 기술 공유·정책 지원 제시
캐나다, 국가 간 연대 중요성 알려
AI 인프라로 속도·효율 확보해야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6 (BIX 2026)’ 개막식에서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국내 최대 바이오 컨벤션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6(BIX 2026)’이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바이오 암흑기를 밝힐 진짜 혁신’을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전 세계 35개 국가에서 방한한 300여 개 기업과 1만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집결해 고금리, 투자 위축 등을 직면한 글로벌 바이오 산업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 기술(R&D)과 자본 전략(M&A)을 집중 논의한다.

28일 개막식에는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성장실장, 주빈국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필립 제닝스 차관을 비롯해 주한캐나다 대사, 주한리투아니아 대사 등 국내외 인사가 참석해 바이오 생태계의 선순환을 다짐했다.

◆ “죽음의 계곡, 홀로는 못 건넌다”

고한승 회장은 개막사에서 “최근 인공지능(AI) 분야로 대규모 자금과 관심이 집중되면서 바이오 산업은 긴 연구개발 기간과 투자 위축이라는 힘든 여건을 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약과 바이오는 사람 질병을 치료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산업인 만큼 공동연구, 사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결실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은 축사를 통해 “바이오 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임상 기간, 까다로운 인허가를 견뎌야 하는 혹독한 ‘데스 밸리’를 거쳐야 한다”며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려면 기술 공유와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 실장은 정부의 3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바이오 제조공정 자동화 및 공공위탁개발생산(CDMO)의 인공지능 전환 ▲2033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하는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 ▲국민성장펀드 및 벤처캐피탈 매칭을 통한 바이오 투자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주빈국으로 참가한 캐나다는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을 알렸다. 필립 제닝스 차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국 우선주의 벽을 쌓는 본능을 배척해야 한다”며 “양국 간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 성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바이오 제조·mRNA·세포치료제 등 핵심 분야에서 중견국 간 협력을 확대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천기술이 재생의학의 미래 견인”

개막과 함께 이어진 기조세션은 줄기세포와 인공지능이 이끄는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를 다뤘다. 미국 비영리 줄기세포 연구기관 뉴럴 스템 셀 인스티튜 공동설립자이자 미국 소재 바이오 신약개발 기업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 최고영업책임자(CSO) 샐리 템플 박사가 연사로 나섰다.

샐리 템플 박사는 환자 유래 줄기세포로 제작한 3D ‘뇌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전측두엽 치매의 초기 진행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

다양한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특히 패널들은 글로벌 빅파마에 비해 규모의 한계를 지닌 한국과 캐나다의 바이오텍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 도입을 통한 ‘속도와 효율성’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 리 바이오복스 대표는 “글로벌 제약사로의 인재 노출, 지식재산권 유출을 막고 자체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키우려면 연구원들의 독자적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모델 중립적’ AI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리 대표는 “AI는 코인을 넣으면 약이 튀어나오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과학자의 주관적 편향을 줄이고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지원 도구”라며 “‘AI-네이티브’ 구조로 전환해야 빅파마와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오픈 스테이지와 기업 인사이트 세션에서는 참가 기업과 기관이 실제 기술 적용 사례, 사업 경험 등 최신 지견을 나누고 전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기업 간 협력과 사업 추진 기회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단백질도 원하는 목적·취향대로 먹는다”

풀무원헬스케어, 단백질 쉐이크
‘디자인밀 프로틴 솔루션’ 2종 선봬



풀무원헬스케어가 단백질 쉐이크 ‘디자인밀 프로틴 솔루션’ 2종(사진)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단백질 제품을 활용해 식단을 관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단백질 함량뿐 아니라 영양 구성과 맛, 섭취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풀무원헬스케어는 단백질과 비오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함유해 영양 관리 목적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블랙7곡’과 ‘리얼초코’ 2종을 선보인다.

‘디자인밀 프로틴 솔루션’은 1포당 단백질 23g을 함유한 고단백 쉐이크다. 분리유청단백, 분리유단백, 피쉬콜라겐, 분리대두단백 등 4가지 단백질을 배합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블랙7곡’은 비오틴 900㎍을 함유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00%를 충족하도록 설계했다. 검정보리쌀, 흑미, 찰흑미, 서리태, 약콩, 흑태, 검정깨 등 7가지 검정 곡물도 담았다.

‘리얼초코’는 1포당 식이섬유 9g을 함유했으며, 베리류와 당근, 돼지감자, 토마토, 호박, 비트 등 29종의 과채 원료를 배합했다.

두 제품 모두 당류 함량을 1~1.4g 수준으로 낮췄으며, 감미료인 에리스리톨과 D-말티톨은 첨가하지 않았다. 비타민 8종과 칼슘·철분·아연 등 미네랄 3종도 함유했다.

식감을 위해 ‘블랙7곡’에는 볶은 현미와 분리대두단백 너겟을, ‘리얼초코’에는 볶은 현미와 초코 프로틴볼을 넣었다. 물이나 우유 180~200mL에 타서 섭취할 수 있다.

제품은 1포당 45g, 1세트당 7포로 구성됐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먼저 선보인 뒤 풀무원 디자인밀 앱과 샵풀무원,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채널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보령, 전문의약품 영업부문 물적분할

내년 1월 ‘보령파마솔루션’ 출범
국내 영업·마케팅, 유통 등 전담

㈜보령이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다. 신설되는 ‘보령파마솔루션’은 유통을 담당하고, 모기업인 보령은 연구개발(R&D)과 글로벌 사업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분할은 모회사 보령이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ETC 영업부문을 담당할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두는 물적분할 방식이다. 신설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분할기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 유통을 전담하고, 보령은 연구개발과 생산, 글로벌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분할 취지에 대해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은 2030년까지 자사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제품군은 보령이 연구개발과 생산을, 보령파마솔루션이 영업·마케팅, 출시 이후 성과 관리까지를 각각 맡아 키워간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분할 이후에도 주주가 보령 주식을 통해 두 사업의 성과를 계속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각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실행 과정과 성과를 점검해, 분할이 보령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설법인 상장에 대해서는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미사이언스, 3분기 누적 매출 1조 돌파

잠정 매출 3629억… 전년比 5.9%↑
온라인팜·자체 사업 호실적 ‘견인’
‘프로-캄’ ‘완전두유’ 등도 실적 기여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의약품 유통 부문의 견조한 성장과 자체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힘입어 올 3분기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투자 관리에 머무는 순수 지주사를 넘어 유통·의료기기·컨슈머헬스 등 자체 사업을 연이어 안착시키며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결실을 맺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3629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2억원, 당기순이익은 156억원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경우, 지난해 3분기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의 대형 기술수출 성과에 따른 역기저효과가 반영되며 다소 숨고르기를 했다.

이와 함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실적으로는 매출액 1조844억원, 영업이익 1119억원, 당기순이익 1015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견고히 다졌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1%, 영업이익은 10.8%, 당기순이익은 19.9% 커졌다.

호실적 견인의 주역은 의약품 유통 전문 자회사인 온라인팜과 한미사이언스의 자체 사업부문이다. 온라인팜은 전문의약품(ETC) 중심의 국내 유통망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3% 늘어난 308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주사 자체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성과를 냈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주력 품목인 ‘가딕스’와 ‘엑티클랏’이 판매 호조를 보인 가운데, ‘리퀴밴드XL’의 매출 증대와 ‘써지가드’의 해외 수출 기반 마련이 맞물리며 사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소비자 접점을 넓힌 컨슈머헬스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약국 전용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프로-캄’의 신제품, 고급 두유 브랜드 ‘완전두유’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기반 유통 확대, 영양식 브랜드 ‘케어미’의 홈쇼핑 및 약국 채널 안착이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또 올해 들어 새롭게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엔플’, 더마 화장품 브랜드 ‘아데시’ 등을 통해서는 웰니스 및 뷰티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탄탄한 유통 경쟁력과 자체 사업의 성장이 본격적인 시너지를 낸 결과”라며 “앞으로 의료기기부터 컨슈머헬스, 웰니스, 뷰티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기적으로 확장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 도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제일약품, 자체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근로자 총 53명 참여… 초기 대응 중점

제일약품은 근로자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제일약품은 지난 27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백암공장에서 ‘2026년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7월 진행한 민관 합동훈련에 이어 공장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제일약품과 제일헬스사이언스 근로자 총 53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휴대용 소화기 사용 모의훈련, 옥외소화전 개방훈련,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누출 방지훈련, 안전물자 반출훈련 등이 주요 훈련으로 실시됐다.

또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비상



지난 27일 제일약품 용인 백암공장에서 ‘2026년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일약품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사고 없는 사업장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대체불가 K-에너지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2026년 11월 10일(화) 14:00~16:3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메트로경제)
후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록 참가비 무료
문　　의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연사 소개



이종민
- 한전기술지주 대표
- 전 SK텔레콤 부사장



이태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곽은섭
-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이상준
-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제훈
-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40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
강연	14:40~15:00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15:00~15:20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15:20~15:40	**이상준**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15:40~16:00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질의응답	16:00~16:30	언론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한국GM, 인평자동차고와 산학협력

한국GM이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인평자동차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지역 자동차 인재 육성에 나선다. 교육용 차량 지원과 생산 현장 체험,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산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국GM은 지난 26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홍보관에서 인평자동차고와 지역 자동차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GM



HK이노엔, 남성 육아휴직 장려로 장관상

HK이노엔이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이나 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지 않는 건강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HK이노엔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2026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남성 임직원 육아휴직 정착 공로를 높게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HK이노엔



소진공, NH손보와 소공인 화재안전 강화

시장진흥공단이 NH농협손해보험과 손잡고 소공인 화재안전 강화에 나선다. 소진공은 NH손보와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소공인 공동 기반 시설에서 '소공인 화재 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까다로운 인수 조건과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공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했다. /소진공

백마고지 영웅 故 남운수 상병
美 은성무공훈장 다시 품다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고(故) 남운수 상병이 73년 만에 미국 정부의 은성무공훈장을 다시 품에 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1묘역에서 고인의 추모식 및 미국 은성무공훈장 헌정·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6·25전쟁 중이던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 북방 백마고지 전투에 육군 제9사단 28연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당시 적의 벙커 기관총 사격으로 아군의 진격이 멈추자, 수류탄 뭉치로 무장한 채 포화 속을 뚫고 자발적으로 돌격해 적진지 입구를 파괴하고 부대의 공격 재개를 이끌었다. 고인은 이 같은 비범한 용맹을 인정받아 1953년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무공훈장을, 국내에서는 충무무공훈장을 각각 수여 받았으나, 생전에 훈장을 분실한 채 안타깝게 지내다 1997년 작고했다.

/한용수 기자 hys@

인 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0대 상임감사 △임근구 전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부 음 ▲현재웅씨 별세, 성윤정(문화일보 국제부 기자)씨 외조부상 = 28일 분당차병원장례식장. 발인 30일 8시. 031-780-6163

삼성전자, 품질만족지수 18년째 최다 부문 1위

가전·TV·모바일 등 14개 부문 1위
냉장고 20회·김치냉장고 14년 연속
AI 기술로 제품 품질·편의성 높여

삼성전자가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가전과 TV·모바일 제품군에서 두루 1위를 차지하며 한국품질만족지수 최다 부문 수상 기록을 18년째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28일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한 '2026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조사에서 14개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생활가전이 10개 부문으로 가장 많았고, TV와 스마트폰·PC·태블릿PC 부문도 포함됐다.

KS-QEI는 제품을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품질 우수성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표준협회가 공개한 조사 방법에 따르면 최근 6개월~2년 안에 제품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별 200표본을 조사하며, 대면 면접과 인터넷 패널 조사를 병행한다. 성능과 신뢰성뿐 아니라 제품 이미지와 인지성·신규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응답 결과는 점수화한 뒤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해 종합 지수로 산출한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키친핏 맥스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가전 부문에서는 냉장고의 누적 수상 기록이 두드러졌다. 냉장고는 조사 이래 통산 20회 1위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키친핏 맥스'의 내부 카메라가 식재료를 인식하고, 'AI 푸드매니저'가 보관 식재료 관리와 레시피 제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김치냉장고는 14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키친핏 맥스'에는 내부 온도 변화를 줄이는 'AI 정온' 모드와 '유산균 아삭 숙성', '맞춤숙성실'이 적용됐다.

세탁기 부문에서는 드럼세탁기가 17년 연속 선정됐고 올인원 세탁건조기는 부문 신설 이후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비스포크 AI 세탁기'는 세탁물의 무게와 옷감 종류, 오염도를 감지해 세탁 과정을 조절한다.

TV 부문도 17년 연속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비전 AI 컴패니언'이 시청 중인 영상 정보와 뉴스·개인 일정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시청 기능인 'AI 축구 모드 프로'와 함성 등을 분리해 조절하는 'AI 사운드 컨트롤 프로'도 적용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퐁피두센터 한화, 샤갈 작품 65점 선봬

내달 24일부터 '샤갈, 너머의 여정'

퐁피두센터 한화가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마르크 샤갈 소장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를 연다. 회화는 물론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조각과 도자까지 선보여 다양한 매체로 확장된 샤갈의 예술 세계를 조명한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두 번째 퐁피두센터 컬렉션 전시 '샤갈, 너머의 여정(Chagall, Ever Crossing)'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프랑스 내 10개 기관에 기탁된 작품을 포함해 퐁피두센터가 소장한 샤갈의 회화·조각·도자 등 65점이 출품된다. 재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와 미디어 작품도 선보인다.

퐁피두센터는 샤갈의 작업실에서 직접 전달된 유족의 기증 작품을 바탕으로 주요 샤갈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작품을 통해 샤갈이 겪은 시대의 격변과 예술적 실험을 함께 다룬다. 특히 조각과 도자 작품을 통해 회화 외 다양한 매체로 이어진 작업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원관희 기자 wkh@

하나금융, 발달장애 학생 진로탐색 지원

밀알학교에 디지털 직업교육 교실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학교 3곳 조성

하나금융그룹이 발달장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직업교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하나금융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에서 '디지털 진로탐색 교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홍재은 밀알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졸업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밀알학교를 시작으로 인천과 대전 지역 특수학교를 추가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3곳에 디지털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밀알학교에 마련된 디지털 진로탐색 교실에는 음성대화가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직업훈련용 가상현실(VR) 기기, 멀티미디어 학습 키오스크, 교육용 판매시점정보관리(POS) 기기, 인터랙티브 LED 보드, 디자인 실습용 태블릿PC 등이 설치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유원, 행복한백화점 동절기 안전점검

이태식 대표 현장 찾아 시설 점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이태식 대표가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아 서울 목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백화점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8일 한유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행복한백화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한유원의 자회사인 '한유원 파트너스'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태식 대표는 안전관리 담당 부서와 함께 행복한백화점을 구석구석 살피며 일상 속 사고를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특히,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건조한 겨울철을 맞아 화재 감지시설과 소방장비 현황, 비상 대피로 점검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대표는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전 임직원이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여성CEO 1500명 한자리 'WE-CON' 성료

제주서 이틀간 교류·협력의 장 마련
새 사업 기회 발굴·성과 공유 다짐

여성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한 국내 최대 행사인 '2026 WE-CON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가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2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기존에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가 올해 'WE-CON'으로 새롭게 간판을 바꿔단 가운데 지난 26~27일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제주 일대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여경협이 주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연수는 '세상을 밝히는 빛, 미래를 이끄는 337만 여성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졌다.

'WE-CON'의 'WE'는 여성경제인(Women Entrepreneurs)과 '우리'를, 'CON'은 연결(CONnect)과 콘텐츠(CONtents)를 뜻하며, 여성경제인들이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여성CEO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이 만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성과가 여성기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WE-CON을 단순한 만남을 넘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경제인 플랫폼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2026 WE-CON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가 지난 26~27일 제주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귀뚜라미, AX 품질만족지수 보일러 1위

콘덴싱 가스보일러 품질 경쟁력 인정

귀뚜라미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6년 AX 품질만족지수(AX-QEI)' 조사에서 콘덴싱 가스보일러 부문 1위에 선정됐다.

28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성능, 신뢰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사용품질'과 이미지, 인지성, 신규성 등을 평가하는 '감성품질'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콘덴싱 가스보일러 부문 1위에 올랐다.

귀뚜라미 콘덴싱 가스보일러는 사용자의 생활습관을 반영한 온수 제어와 간편한 보일러 조작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용 편의를 높여왔다.

대표 모델인 '거꾸로 NEW 콘덴싱 L10 가스보일러'의 '스마트 온수'는 AI가 시간대별 온수 사용패턴을 분석해 온수가 필요할 때 미리 준비하는 기능이다. 평소 온수를 자주 사용하는 시간에 맞춰 열교환기를 미리 예열해 온수 대기시간을 줄여준다.

귀뚜라미는 올해 '귀뚜라미보일러 AI 방방 난방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며 생활패턴에 맞춘 AI 제어 범위를 각 방의 난방으로 확대했다. 각 방의 재실 여부와 생활패턴을 분석하는 '방방 난방'에 '쾌속 난방'과 '온수 AI 모드'를 더해 난방부터 온수까지 맞춤형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마트에서 절대 지나치면 안되는 식품표시



연 윤 열 의
푸드톡톡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대부분은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한다.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 습관이다. 그러나 식품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날짜 하나가 아니라 식품표시(Label) 전체다. 식품 포장지에 적힌 작은 글씨에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영양, 보관방법, 알레르기 정보, 원산지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현대적인 식품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량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제품을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장기한'을 의미한다. 즉 적절한 보관조건을 유지했을 때 제조업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판매 가능 기간이다. 많은 소비자는 이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이해해 왔지만, 실제 의미는 이와 다르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직후 곧바로 부패하거나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직 안전한 식품까지 폐기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음식물 쓰레기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소비기한은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되었다. 낙농·유업계의 냉장 유통 환경 개선 및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일반우유(냉장 보관)는 2026년 현재 유통기한이 유지되고 있으며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도입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판매 기준이었던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멸균우유, 치즈, 통조림, 라면과 같이 미생물이 쉽게 증식하지 않는 식품은 실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다. 반면 김밥, 도시락, 생선회, 신선편의식품처럼 미생물 증식 위험이 높은 식품은 소비기한도 매우 짧다. 즉, 모든 식품이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특성과 제조공정, 포장방법, 저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소비기한이 설정된다.

소비기한은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면 가장 먼저 실시하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소비기한 설정 시험(Shelf-life Test)이다. 제품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품질과 안전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식품 제조업체의 책임은 더욱 커졌다. 제품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소비기한 설정 시험뿐 아니라 제조공정의 위생관리, 원료 품질관리, 포장기술, 냉장·냉동 유통체계 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냉장식품은 생산공장에서 소비자 식탁에 이르기까지 콜드체인이 유지되어야 한다. 유통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소비기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때만 유효하다. 개봉 후에는 소비기한과 관계없이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스캔하면 제조일부터 유통온도, 품질상태, 예상 잔여 소비기한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라벨 속의 작은 글씨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의 파수꾼임을 명심하자.

/기술사, 한국비건협회 공동대표

AI의 과실은 누가 따먹나



기자 수첩
구 남 영
〈산업부〉

잔칫집에서는 모두가 웃지만 계산서를 받아 든 사람의 표정은 다를 수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러온 반도체 호황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리는 반면, 소비자들은 점점 높아지는 전자제품 가격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8일 발표한 3분기 실적은 AI 시대의 풍요를 상징한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83조 3338억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도 추진한다.

그러나 반도체 기업의 호황이 모든 산업에 반가운 소식인 것은 아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RAM 수요가 급증하면서 범용 메모리 공급까지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PC와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러한 원가 부담은 소비자 가격에도 나타나고 있다. 애플은 지난 6월 메모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맥북과 아이패드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99만원이던 보급형 맥북 네오의 국내 출고가도 119만원으로 올랐다.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노트북을 구매하려면 높아진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비자가 제품의 완성도에 거는 기대도 커진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는 329만원에 출시됐지만 일부 제품에서 화면 손상 문제가 발생했다. 애플은 교체 방침을 밝혔으나 정확한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는 별개 사안이지만,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에 얼마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준다.

물론 신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기업이 거둔 성과를 주주와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AI 산업의 성장도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 발전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소비자의 부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AI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도 메모리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검색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매할 때도 높아진 부품 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비자의 일상에도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가 모두의 미래라면 그 과실이 어디로 향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9일 (음 9월 1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남과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60년생** 재물을 놓고 주변 사람과 다투는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72년생** 이성운이 좀 불리합니다. **84년생**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재물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61년생**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73년생**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됩니다. **85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가급적 다음으로 미루세요. **62년생** 새로운 기운을 얻기 위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74년생** 상태를 사수하세요. **86년생** 내일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토끼 **51년생** 손실이 있으나 정신을 차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63년생** 큰 결정은 잠시 미루세요. **75년생**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7년생** 여행을 계획했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용 **5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6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88년생** 정신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뱀 **53년생**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77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9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 **54년생** 사소한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6년생**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 **78년생**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90년생** 윗사람을 잘 따라야 합니다.

양 **55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67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날입니다. **79년생**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91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됩니다. **68년생** 명성과 이익이 있겠습니다. **80년생** 일이 쉽게 이루어지니 큰 이익이 있겠습니다. **92년생**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닭 **57년생** 말을 조심해서 하세요. **69년생** 모든 것이 길한 하루입니다. **81년생** 욕심을 버리고 그 동안의 일을 정리할 때 입니다. **93년생** 모든 일을 침착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개 **58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70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82년생**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94년생** 평소 관심 있는 이성에게 데이트신청을 받게 됩니다.

돼지 **59년생** 모든 것이 처음으로 날 것입니다. **71년생** 밝은 이름을 얻겠고 재물을 얻을 것 입니다. **83년생** 꾀하던 일을 이룰 수 있고 바라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95년생** 즐거운 하루입니다.



김상회의 四季

반려동물이 물건?

집이나 집안에는 식탁 소파 냉장고 텔레비전 책상 의자 같은 물건이 있다. 그 옆에는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반기는 반려견도 있다. 이 두 가지는 생각지도 못한 공통점이 있다. 현행 민법으로 보았을 때 생기는 공통점이다. 식탁 소파 책상과 반려견이 똑같이 물건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즉 법 규정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고 모두 물건일 뿐이다. 그런데 반려견을 물건으로 여기는 집이 있을까? 반려견은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것도 반려견이고, 피곤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까지 달려와서 맞아주는 것도 반려견이다. 마음이 울적한 날에는 반려견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반려견이 아프면 모든 가족이 함께 아파한다. 이런 반려견이 법에서는 물건이다.

현실적인 상황과 법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그 여론은 더 힘을 얻고 있다. 현실과 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판례에서도 반려견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물건이지만 인간과 공감하고 감정이 있는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5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시대가 반영해야 한다. 법은 사람들과 사회가 공감하는 상식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졌다면 법도 그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6		1		2		5
								1
				7			8	
						9	2	
	8	7						
	7			5				
4								
3		2		8		4	7	6

		1			2	8		
5								4
	8	2				9		
	5							
1								2
							6	
		8				1	9	
9								6
		7	5			4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7	4	1	8	9	2	5	3
8	5	3	6	2	7	9	1	4
2	9	1	4	5	3	8	7	6
4	1	9	3	6	2	7	8	9
9	8	6	7	4	5	1	3	2
1	4	5	8	9	6	3	2	7
3	6	8	9	1	4	5	7	2
7	2	9	5	3	8	6	4	1
5	3	2	8	7	1	4	9	6

8	3	4	1	9	5	7	2	6
6	7	2	3	4	8	9	1	5
5	9	1	7	6	2	3	4	8
4	6	8	5	2	9	1	3	7
7	2	9	6	8	4	5	1	3
3	5	6	9	1	7	2	8	4
2	1	3	4	5	6	8	7	9
9	4	5	2	7	3	6	9	1
1	8	7	8	3	1	4	6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3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비행기 소음 잡고 주거 혁신… 아이파크, 목동 재건축 정조준

현장르포

목동 아이파크 라운지

IPARK현산, 목동11단지 도전장
창호 소음 차단 시연·로봇 카페
1·2단지 공간 유기적으로 연결



지난 27일 목동 아이파크 라운지 프레스투어에서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항공기 소음을 재현한 음향을 활용해 창호의 차음 성능을 시연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비행기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난 27일 방문한 서울 구로구 목동남로에 마련된 '목동 아이파크 라운지'. 공원 풍경을 담은 대형 이미지 앞에서 항공기 소음이 울려 퍼졌다. 목동 주민들에게 익숙한 비행기 소리를 재현한 창호 차음 성능 시연이었다. 창호를 닫자 귀를 자극하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김포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로 소음 문제가 거론되는 목동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기술이다. 목동1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IPARK현대산업개발이 다음 달 2일 정식 개관하는 라운지에서 선보인 장면이다.

목동11단지 정면 현준프라자 7층에 자리한 라운지는 약 120평 규모다. IPARK현대산업개발이 목동 재건축사업을 겨냥해 자사의 주거개발 경험과 브랜드 경쟁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식 개관에 앞서 지난 27일 프레스투어를 통해 라운지 내부 시설과 목동11단지 수주 전략이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

이날 설명회의 무게중심은 목동11단지 재건축 수주 전략에 실렸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여러 건설사의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목동11단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원과 연계한 설계, 두 개로 나뉜 단지의 연결성, 저층부와 중층부의 개방감 등을 차별화 요소로 제시했다.

고상수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팀 소장은 "여러 경쟁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동11단지에 참여했다"며 아이파크 브랜드의 특성을 살린 공원 연계 설계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목동11단지가 두 개의 단지로 나뉘어 있는 점도 주목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1단지와 2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구성을 수주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거 용산 지역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강조했던 '커넥션(Connection·연결)' 개념을 목동에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축물 높이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설계 차별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목동11단지가 다른 단지에 비해 건물을 약 8개 층 낮게 계획해야 하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주거 서비스도 수주 제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기존 건설사들이 제시해 온 AI 주차 특화와 로봇, 전기차 관련 서비스와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자재와 시공 기술도 강조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층간 마감재와 단열재 등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실제 착공 시점에는 기술이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문제도 언급했다. 고 소장은 "소유주들이 층간소음이나 외부 소음,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고민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담금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해결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까지 담아낼 수 있는 사업 참여 제안서를 내놓겠다"고 했다.

라운지는 브랜드존과 모형존, 프레젠테이션존, 콘텐츠존, 카페 라운지 등으로 구성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단순한 브랜드 전시를 넘어 방문객이 공간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라운지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IPARK가 가진 역량을 목동의 지역적 특색에 맞춰 온전히 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주거 기획과 설계·시공부터 도시개발과 운영까지 디벨로퍼로서 목동이 그리는 새로운 삶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현대건설, 저온에도 강한 특수 콘크리트 개발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기술인증
영하 2도에도 5MPa 이상 강도 확보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

현대건설은 간절기 시공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간절기 특수 콘크리트' 기술로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인증은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기술의 우수성과 현장 적용성을 전문가 심의를 통해 검증하는 제도다.

간절기는 큰 일교차와 낮은 기온으로 인해 콘크리트 강도 발현이 지연될 수 있어 품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저온 환경에서도 설계기준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높은 강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멘트 사용량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과 현장 관리 부담이 발생해 왔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통합 연구개발(R&D) 조직인 HMG건설기술연구원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표산업과 함께 간절기 특수 콘크리트를 공동 개발했다. 이 기술은 일반 슬래그 시멘트 대비 초기 강도 발현 성능을 향상시킨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와 성능을 개선한 혼화제를 적용해 일 최저 외기온도 -2℃, 최대 일교차 20℃ 이하의 환경에서도 48시간 이내에 5MPa(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별도의 보온 양생이나 설계 강도 상향 없이도 요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3월 '더 파크사이드 서울'과 '디에이치 클래스트' 현장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실증을 완료했다. 적용 결과 타설 후 48시간 이내 거푸집 탈형에 필요한 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며, 타설 후 28일 경과 시점에도 품질 기준 압축강도를 상회하는 성능을 나타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도 우수한 작업성을 유지해 간절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품질 확보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울 잠원·가락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서울시 건축위 4개 사업 통과
역세권 개발까지 621세대 추가 공급

서울 서초구 잠원동과 송파구 가락동의 노후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총 359세대 늘어난다. 성북구 안암역과 마포구 광흥창역 일대에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262세대가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기존 아파트 증축과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내 주택 621세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광흥창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4개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는 2002년 준공된 단지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991세대에서 1073세대로 82세대 늘어난다.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는 1997년 준공된 단지로, 기존 2064세대에서 2341세대로 277세대 증가한다.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수직·수평 증축을 병행하며, 최고 27층 규모로 조성된다. 늘어나는 277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역세권 개발사업 2곳에서는 총 262세대가 공급된다.

성북구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인근 노후·저이용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28층, 2개 동 규모로 공공임대 30세대와 민간임대 102세대 등 총 132세대를 조성한다.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는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세대가 들어선다.

/이현진 기자

아크메르 동탄 1순위 최고경쟁률 16.88대 1

전체 신청 86%, 84㎡에 쏠려

경기 화성시 '아크메르 동탄'의 1순위 청약에서 일부 전용 84㎡ 주택형이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대형 평형은 미달을 기록해 주택형별로 결과가 갈렸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아크메르 동탄 95·99블록 1순위 청약에서 1559가구 모집에 1583건이 접수됐다. 모집 가구 수는 특별공급 미달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넘어온 물량을 포함한 수치다.

신청은 일부 주택형에 집중됐다. 95블록 전용 84㎡C는 해당지역 기준 16.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블록의 전용 84㎡에 접수된 신청은 총 1362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반면 95블록의 전용 116㎡ 이상 대형 평형은 모두 모집 가구 수보다 신청이 적었다.

지난 16일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은 단지의 교육·생활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비용까지 더하면 가격 부담이 커져 고민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블록의 전용 84㎡ 분양가는 16억 5120만~17억1680만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비 2900만원과 유상옵션 비용은 별도다. 전용 116㎡부터는 분양가가 21억원을 넘는다.

또한 사업지가 있는 화성시 동탄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자금 마련 부담과 규제에 따른 제약 속에서 수요자들이 면적별 분양가와 평면의 실용성 등을 따져 선별적으로 청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채리 기자 cr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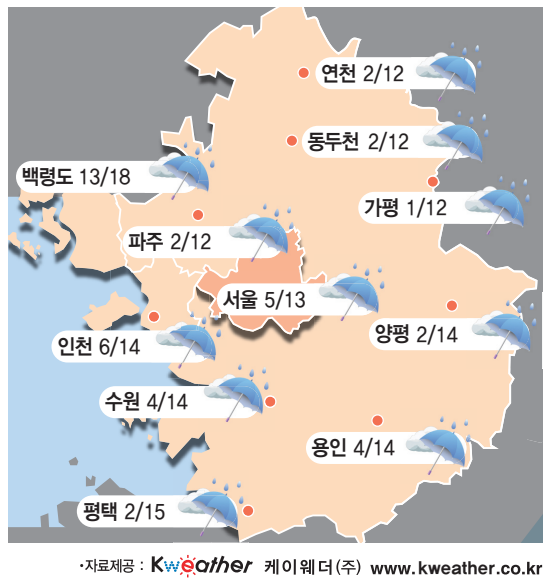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4 | 해짐 / 17:50

10월 29일(木) 음력 : 9월 19일

수도권 날씨 5 ~ 1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美 이란 추가 공격설 속 전쟁 비용 470억 달러로 증가

▲시진핑, 4선 성공 룰라에 축전…"중·브라질 관계 매우 중시"



▲마크롱 "SNS가 민주주의 훼손"…시위 앞두고 인터넷 차단 검토

▲트럼프 정부, 러시아 국부펀드 제재 해제 추진

/사진 뉴시스

▲아프리카 에볼라 환자 1만 돌파…국내 위험도는 '낮음'

▲알리바바, 美국방부 로비 제한 소송서 승소…美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3호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이랜드그룹
소장품 컬렉션
기네스 세계기록
L1

BIX 2026 개막
바이오·제약
한계 넘어야
L2



기분 좋은 자극이 피부 광채로 세계 깊숙히 파고든 '따끔한 침투'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마리엔메이 '스피큘 PDRN 크림'

자체 미세침기술에 PDRN 결합한 스킨케어
전 세계 70여개 국가서 연매출 300억 달성
글로벌 타깃으로 제품·유통·마케팅 설계

따끔한 자극으로 유효성분 피부로 침투해
'활성화, 치유, 회복' 3단계로 제품 세분화

자극이 주는 효능 감각적 캠페인으로 전개
세계 권역별 최상위 랜드마크 유통채널 확보
연매출 1000억 글로벌 메가브랜드로 도약

마리엔메이(Mary&May)의 '스피큘 PDRN 크림'은 자체 미세침 기술(MPS)인 스피큘 기술과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을 결합해 개발한 고기능성 스킨케어다.

바르는 순간 느껴지는 '기분 좋은 자극'이 피부 광채로 이어지는 사용 경험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1초에 2개꼴로 판매되면서 마리엔메이 연매출을 300억원 규모로 견인했다. 최근에는 101개 국가 소비자가 참여한 글로벌 소셜 캠페인에서 글로벌 히어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태생부터 글로벌 전용으로

마리엔메이는 에이드코리아 컴퍼니가 2021년 1월 공개한 '효능 검증 클린뷰티' 브랜드다. 좋은 성분을 투명하게 담되 피부가 체감하는 효능은 확실하게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제품명에 성분명을 쓰고 함량을 전면에 표기한다. 특히 모든 제품은 임상 검증 데이터를 확보한 뒤 출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스피큘 콜라겐 PDRN 크림'의 경우, 임상 결과 4주 사용 후 피부 볼륨 119.21%, 피부 장벽 111.72% 개선을 기록하며 강렬한 효능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국내 성공 후 해외 진출이라는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소비자 기준으로 제품·유통·마케팅을 설계했다. 그 결과 70여 개 국가로 진출, 전체 매출의 85%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다. 초기 확장에는 K뷰티 유통 기업 실리콘투의 투자와 글로벌 유통 인프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스피큘 PDRN 크림

◆따끔한 순간 '흡수'…3단계 스킨케어

'스피큘 PDRN 크림'의 차별화는 단일 성분이 아니라 완벽히 구축된 시스템에 있다. 독자 구축한 미세 침상 성분이 각질층을 통과해 모공보다 작은 흡수 통로를 만들어 유효 성분을 피부 속으로 전달한다. 피부과 마이크로니들링과 원리가 같다. 크림 한 통에 10만여 개의 스피큘을 처방해 사용 시 살짝 따끔한 자극은 성분이 침투하고 있다는 체감 신호다.

여기에 마리엔메이는 자극 이후를 관리하기 위한 성분까지 한 제품에 담았다. 피부 재생을 돕는 PDRN과 진정·보습 성분이 자극을 가라앉히고 장벽을 복구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단독으로는 침투하지 못하는 PDRN이 스피큘이 열어 준 통로를 통해 제 역할을 다하게 된다. 스피큘과 PDRN을 한 제품에 결합한 구성은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이를 마리엔메이는 '활성화(액티베이트), 치유(트리트), 회복(리커버)' 등 3단계로 정의한다. 스피큘이 침투 경로를 열고 피부 고민별 성분이 집중 관리하며 PDRN이 재생·회복을 마무리한다. 이 중 트리트 단계는 탄력(콜라겐), 주름과 모공(레티놀), 트러블(아젤라익애씨드) 등으로 세분화했다.

◆3초 만에 시선 뺏고 3억 뷰 기록

마리엔메이는 제품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따끔함'이라는 자극을 오히려 캠페인 주제로 다뤘다. 크리에이터가 스피큘의 자극을 영상 첫 3초 안에 표정으로 표현해 효능을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이어 명확한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콘텐츠가 확산됐다.

첫 캠페인인 '노 페인 노 게인(No Pain, No Gain)'은 101개 국가 소비자가 함께해 캠페인 영상 1억 뷰를 돌파했다. 'POP 챌린지'에서 한 달간 약 1만 8000건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가 생성됐다. 이어 '기분 좋은 자극이 피부를 얼마나 바꾸는지 느껴보라'는 긍정적 메시지로 전환한 두 번째 캠페인 '팅글 투 글로우(Tingle to Glow)' 역시 누적 1억 뷰를 넘어섰다. 두 캠페인의 기록은 합산하면 누적 조회수 3억 뷰 이상, 관련 콘텐츠 2만 5600건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마이크로 크리에이터에서 출발해 검증된 효능을 챌린지로 확산하는 운영 원칙과 15개 국가 출신 직원이 30여 개 국가 현지 광고를 직접 집행하는 마케팅 내재화가 뒷받침됐다. 틱톡 팔로워가 남미에서 8만 2600%, 아랍권에서 2만 3876% 증가하는 등 신흥 시장 팬덤이 급성장했다.

◆아마존부터 월마트까지 채널 확보

스피큘 PDRN 크림은 마리엔메이 브랜드 2대 히어로 제품이다.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1000만 개가 팔린 트라넥사믹산 글루타티온 아이크림의 뒤를 이어 브랜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아이크림이 중동 시장에서 강력한 강세를 보인다면 스피큘 PDRN 크림은 유럽과 북미 영역에서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린다.

북미에서는 틱톡숍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1000건 이상의 콘텐츠가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또 아마존 출시 직후 '아마존 초이스'를 획득하고 미국 유명 전국 방송 CBS에도 주요 제품으로 소개됐다.

유통망은 권역별 최상위 랜드마크 채널을 중심으로 확보했다. 북미의 아마존·타겟·월마트·노드스트롬, 유럽 30개 국가의 노티노, 튀르키예의 그라티스, 중동의 라이프스타일 눈, 동남아의 포야·쇼피·사사·가디언, 남미의 팔라벨라·메르카도리브레, 러시아 골드애플 등을 거점으로 한다.



마리엔메이가 지난 2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Notino K-fest'에 참가했다.



마리엔메이는 기분 좋은 자극을 표현한 두번째 캠페인 '팅글 투 글로우'를 펼쳤다.

◆3년 내 1000억원 브랜드 도약

마리엔메이는 KB인베스트먼트, JB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기관투자자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투자자들은 마리엔메이가 브랜드 공개 5년 만에 70여 개 국가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점, 히어로 제품을 연속으로 배출해내는 탁월한 기획력, 다국가·다채널 유통 구조, 현지 맞춤형 마케팅 등을 높게 평가했다.

확보한 투자금은 미국·유럽·일본·중동 등 핵심 주요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유통망 확장 그리고 스피큘 PDRN 라인의 성공을 잇는 차세대 히어로 제품 개발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마리엔메이 관계자는 "현재 연매출 300억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3년 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며 "글로벌 소비자가 피부 고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효능 검증 K클린뷰티 브랜드'가 되는 것이 마리엔메이의 최종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K리그2 김해FC, 성적부진 위기에 설기현 감독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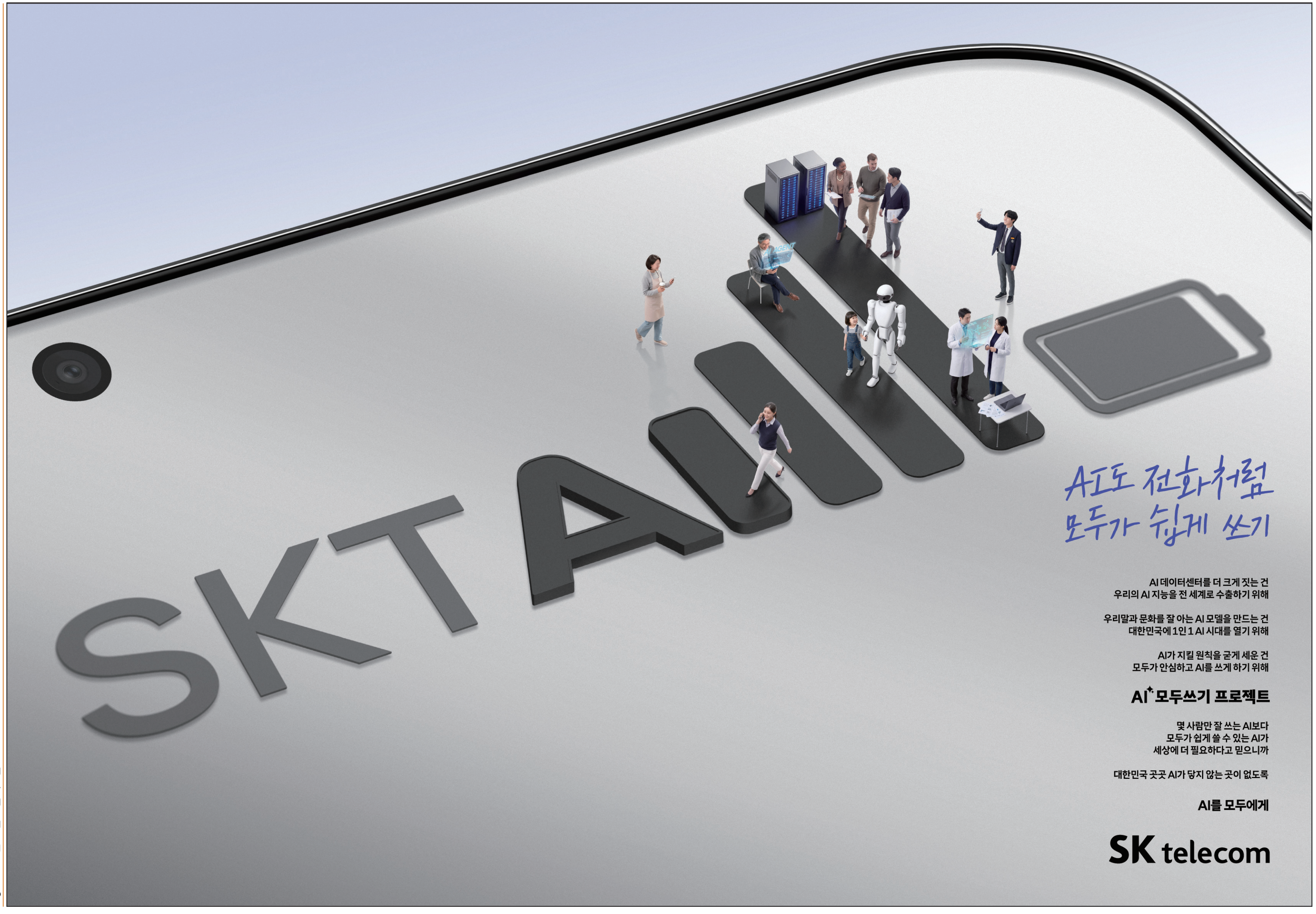
▲'수원 고종현 팔꿈치 가격은 퇴장감'…축구협회 오심 인정 /사진 뉴시스

▲베테랑 손아섭, 친정팀 NC 복귀…연봉 5000만원 계약

▲남자배구 윤경,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OK저축은행 지명

▲샤갈 작품 65점 서울 온다…퐁피두센터 한화, 11월 24일 개막

▲'문체부, 우수도서관 58곳 포상…대통령 표창에 서구도서관·고창고



AI도 전화처럼
모두가 쉽게 쓰기

AI 데이터센터를 더 크게 짓는 건
우리의 AI 지능을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우리말과 문화를 잘 아는 AI 모델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에 1인 1 AI 시대를 열기 위해

AI가 지킬 원칙을 굳게 세운 건
모두가 안심하고 AI를 쓰게 하기 위해

AI 모두쓰기 프로젝트

몇 사람만 잘 쓰는 AI보다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AI가
세상에 더 필요하다고 믿으니까

대한민국 곳곳 AI가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AI를 모두에게

SK telecom